

세월호 재난으로 자녀를 잃은 부모의 애도 과정에 대한 근거이론 연구

전지열¹⁾ 신지영¹⁾ 최준섭¹⁾ 김정환²⁾ 이동훈^{1)*}

¹⁾성균관대학교

²⁾Texas Tech University Health Science Center

본 연구는 세월호 재난으로 자녀를 사별한 부모의 애도과정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세월호 재난으로 자녀를 잃은 부모 17명을 대상으로 재난 2년차 시점에서 인터뷰 한 면담자료를 본 연구 목적을 위해 활용하였으며, 면담자료는 Strauss와 Corbin(1990)의 근거이론(grounded theory) 절차에 따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개방코딩에서는 150개의 개념, 53개의 하위범주, 23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축코딩 결과, 인과적 조건은 “갑자기 들이닥친 재앙”, “믿을 수 없는 자녀의 죽음”의 2개 범주, 맥락적 조건은 “안산지역 주민들의 반응”, “언론의 지지와 도움을 받지 못함” 등 10개 범주가 도출되었고, 현상은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분노에 압도된 생활”의 1개 범주, 중재적 조건으로는 “사회적 애도” 등 3개 범주,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자녀 그림자 지키기” 등 3개 범주, 결과는 “추억으로 견뎌가는 삶” 등 4개 범주로 나타났다. 과정분석 결과, 세월호 재난으로 자녀를 잃은 부모의 애도단계는 충격/부인, 슬픔/분노, 우울/무기력/답답함, 고립/연대감, 복합애도정서의 지속/소명감의 5단계로 도출되었다. 최종적으로 세월호 재난으로 자녀를 잃은 부모의 애도 과정 및 특징에 관한 애도단계의 다층구조를 제시하였으며, 지원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 하였다.

주요어 : 세월호 유가족, 자녀와 사별한 부모, 애도, 근거이론

* 교신저자 : 이동훈,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외상심리건강연구소, (110-743) 서울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 (명륜3가) 호암관 50204호 / Tel: 02-760-0558, E-mail: dhlawrence05@gmail.com

세월호 재난은 304명이 침몰하는 배 안에서 사망하게 된 대형 참사로서, 세월호 참사로 인해 가족구성원을 잃은 유가족들의 트라우마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이순열, 2015). 세월호 유가족들은 세월호 재난 이후 여전히 자녀를 잃은 슬픔으로 인하여 심리적, 신체적 고통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고립까지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연합뉴스, 2017. 11. 28). 이처럼 유가족들이 자녀 잃은 참척의 고통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인 상담 및 심리치료를 찾은 경우는 전체 세월호 유가족 중 25.8%에 그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메디컬투데이, 2017. 10. 8). 이러한 상황을 비추어 볼 때, 세월호 재난으로 자녀와 사별한 부모들은 재난으로부터 몇 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렬한 애도 반응을 지속적으로 경험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세월호 재난으로 자녀를 잃은 부모들이 각자의 고유한 애도과정 속에서 어떠한 애도 반응을 경험하고 있는지 탐색함으로써 구체적인 심리 지원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족 구성원을 잃은 유가족들은 사별 경험으로 인해 애도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 사별 이후 애도 반응으로는 분노, 불신, 죄책감, 비통함, 외로움과 공허함, 정체감의 혼란, 죽음에 대한 수용의 어려움, 고인에 대한 갈망 및 몰두, 침습적 사고, 고인을 떠오르게 하는 것으로부터의 회피, 불면, 상실의 영향에 대한 부정, 일상생활의 흥미 감소, 직장 및 가족 차원에서의 어려움, 사회적 철수 등이 있다(Horowitz et al., 2003; Prigerson, et al., 1995; Prigerson et al., 2009; Rando, 1993). 특히 갑작스러운 사별을 경험한 개인은 자신의 삶이 변화 없이 그대로 지속될 것이라는 가정적 세계

(assumptive world)가 파괴되고, 가치관, 세계관, 정체성의 영구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Neimeyer, 2005). 이러한 전환 과정은 고인이 없는 삶에 점진적으로 적응해나가는 과정을 포함하며(Parkes, 1993), 자신의 삶에 대한 의미를 재구성하는 과정을 포함한다(Parkes, 1988; Neimeyer, 2005). 이러한 점에서 유가족이 고인을 사별한 이후 ‘애도하는 것(grieving)’은 상실을 자신의 삶의 일부로서 통합시키는 과정의 의미한다(Arnold, & Gemma, 2008).

갑작스러운 사별을 경험하였을 때 유가족들이 나타낼 수 있는 애도 반응에는 개인차가 존재할 수 있다. 애도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고 표현되는지는 개인마다 상이할 수 있고, 애도 반응을 자신이 속한 환경에 표출하는 방식은 저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Bonanno & Kaltman, 2001; Wortman & Silver, 2001). 이러한 애도 반응의 정상성은 반응의 지속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통상 정상적인 애도 반응은 6개월에서 12개월까지 지속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한혜성 등, 2016). DSM-5에서는 고인을 향한 지속적인 갈망, 정서적 고통, 사별을 둘러싼 상황적인 측면에 대한 몰두 등의 애도 반응이 12개월 이상 지속되고, 사회적 측면에서의 어려움과 정체성의 붕괴를 경험하는 증상을 지속성 복합 애도 장애(persistent complex bereavement disorder)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사랑하는 사람을 사별한 구체적인 사건에 의해 유발되는 현상이며, 고인에 대한 그리움과 공허함이 주된 정서라는 점에서 PTSD와 주요우울장애와 구분될 수 있다(Bonanno et al., 2007; Maercker, & Lator, 2012). Rando(1995)는 애도 반응이 단기간 내에 나타나고 사라질 수 있는 반면, 오랜 기간에 걸쳐 만성적인 형태로 반응이 지속될 수도 있

으며, 상실 경험에 대해 충분히 슬퍼할 수 없는 특정한 맥락 속에 놓여있거나, 사별 경험자가 역할 수행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을 때, 상실을 경험한 당시에 바로 애도반응을 나타내지 못하는 지연된 애도(delayed grief)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지연된 애도반응을 나타내는 사람들은 사별 경험 이후 지속적으로 애도반응을 나타내는 사람들에 비해 더 낮은 수준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보일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Ginzburg, Geron, & Solomon, 2002).

또한 애도반응은 사별을 경험한 사람이 처한 발달시기 별로 다르게 나타나며, 성인과 아동 및 청소년이 상이하게 나타난다(Mallon, 2010). 특히 유가족의 체계 안에서 자녀를 사별한 부모의 애도반응과 형제를 사별한 이후 남겨진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생존자녀(surviving child)의 반응은 각기 다를 수 있다. 자녀를 사별한 부모의 경우 생존자녀를 보호할 수 있는 부모로서의 능력에 대한 신념에도 도전을 경험하게 된다(Klass & Marwit, 1989). 대부분의 부모들은 가족과 자녀를 보호하는 것을 주요한 부모역할로 지각하며, 이러한 역할 수행 때문에 부모가 자녀보다 먼저 죽음을 맞을 것이라는 내적인 신념을 갖고 있으므로(Rando, 1985) 갑작스러운 자녀의 죽음은 양육자로서 자녀를 보호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을 안겨줄 수 있다(Braun & Berg, 1994; Wheeler, 2001). 또한 자녀를 잃은 부모는 생존자녀를 보호하려는 노력 때문에 정작 자신의 애도는 표출하지 못한 미해결된 상태로 남을 수 있다(Lehman, Lang, Wortman, & Sorenson, 1989). 형제를 잃은 생존 자녀가 아동 및 청소년인 경우, 중요한 발달적 시기에 형제의 죽음으로 인한 애도경험으로 인해 심리적, 신체적, 관

계적, 사회적 측면 등 다양한 방면에서의 삶의 변화를 경험하고(Lohan & Murphy, 2001) 대인 관계의 어려움을 보고하였다(Hogan & DeSantis, 1992). 생존자녀의 상실감은 가족 체계 안에서 더욱 증폭될 수 있는데, 형제를 잃은 슬픔과 동시에 형제의 죽음으로 슬퍼하고 있는 부모와의 상호작용에 어려움을 경험함에 따라 이중 상실(double loss)을 경험하기 때문일 수 있다(Doka, 2011).

이렇듯 애도반응을 보이는 유가족은 자신만의 고유한 애도과정에 들어서게 된다. 애도를 경험하는 사람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애도과정은 첫 번째로 단계모델이 있다(Stroebe, Hansson, Schut, & Stroebe, 2008). 일찍이 Lindemann(1944)은 고통스러운 상황에 대한 정상적인 반응으로서 강렬한 슬픔을 경험할 수 있음을 밝히며 애도 과정은 충격과 불신, 극심한 애도, 애도과정의 해결로 이루어진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았다. 이어 Kubler-loss(1969)는 (1) 부정, (2) 분노, (3) 협상, (4) 우울, (5) 수용으로 구성된 애도과정 5단계를 제시하였다. 그 이후 Bowlby(1980)는 정서적인 무감각에서 갈망과 그리움, 절망과 혼란, 재정립으로 구성된 애도 4단계를 제시하였으며, Worden(1991)은 (1) 상실을 현실로 수용, (2) 슬픔의 고통을 뚫고 나가기, (3) 고인이 죽음으로 인해 존재하지 않는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기, (4) 고인의 존재를 자신의 삶에서 재정의 하고,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기 라는 애도 과업 모델 4단계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4단계 모델에 Rando(1993)는 마지막 단계로 ‘재적응’ 단계를 추가하였다. ‘재적응’ 단계란, 고인과의 애착관계를 지속하면서도 자신의 삶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고 인생을 위해 재투자 하는 것을 말한다(Rando, 1993). 동일한 맥락에서 Schneider(1984)

는 성공적인 애도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성장의 맥락으로 상실을 재구성한 이후, 상실을 애착의 새로운 수준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하였다. 한편 Marrone(1997)은 먼저 사별을 경험한 유가족의 인지적 재구성이 선행된 이후 정서 표현이 나타나고, 그 이후에 심리적 재건과 영적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단계/과업 모델과 같이 유가족의 애도가 특정한 단계마다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역동적으로 각 단계를 오가며 변화한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이는 애도 과정 속에서 사별로 인한 슬픔과 회복이 계속 번갈아 반복되는 모습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다(Bonanno, & Kaltman, 2001; Machin, 2008; Stroebe, & Schut, 2010). 애도 과정 속에서 유가족들은 자신이 당면한 사별 슬픔에 대처하고, 고인이 없는 삶에 적응하기 위하여 대처 양상을 나타낸다. 상실 이후 대처와 관련된 대표적인 모델은 Stroebe와 Schut(1999)의 ‘이중과정모델(Dual Process Model: DPM)’이다. DPM은 사별 슬픔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상실을 향한 대처와 회복을 향한 대처 양상을 번갈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Stroebe & Schut, 2008), 이는 상실 지향(loss-oriented) 대처와 회복 지향(restoration-oriented) 대처의 2가지 유형으로 나타난다(Stroebe & Schut, 2001). 상실지향 대처는 주로 고인의 죽음과 관련된 애도 작업을 하는데 초점을 두며, 애착 대상을 상실한 것에서 비롯되는 그리움과 갈망, 고인과의 기억 등을 다루기 위해 활용하는 대처 방식이다. 회복지향 대처는 애도로 인한 슬픔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한 작업으로서, 고인을 영적으로 혹은 상징적으로 현존하는 것으로 지각하면서도 고

인이 물리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현실 안에서 삶과 정체성을 재정립해나가는 것이다(Gillie & Neimeyer, 2006). Stroebe 등(2013)은 구체적인 단 하나의 애도방식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다양하고 수많은 대처양식을 사별을 경험한 사람들로부터 발견할 수 있다고 하였고, Bonanno(2004)는 여러 대처 전략을 활용함으로써 사별 이후 적응을 촉진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최근의 연구에서는 상실 지향 대처와 회복 지향 대처 모두 사별 이후 적응에 필요한 과정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Burton et al., 2012).

이러한 대처과정 중에 사별 이후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특성은 ‘유대 지속하기’이다. ‘유대 지속하기’란 떠나간 고인과 내적 관계를 지속해나가는 현상을 의미하는데(Stroebe, Schut, & Boerner, 2010), 고인의 죽음으로 인한 유가족의 슬픔이 순차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고인과의 관계를 맺으며 일상생활에서 회복과 슬픔을 오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사별을 경험한 유가족이 나타내는 고인과의 유대 지속하기(continuing bonds)가 사별 이후 변화된 삶에 대한 성공적인 적응을 이끄는지 혹은 오히려 애도를 심화시키는지에 관한 논의는 부분하게 진행되어왔다(Klass, 1996; Stroebe, Schut, & Stroebe, 2005). 대개 고인과의 유대를 지속하는 것은 고인의 존재를 여전히 느끼고, 고인과 연결감을 느낄 수 있는 물리적인 대상을 소유하며, 고인을 기억하는 것을 통해 평온을 느끼게 되는 것을 말한다(Currier, Irish, Neimeyer, & Foster, 2015). 한편, 폭력적인 방식으로 소중한 이를 사별한 외상성 사별의 경우 고인과의 유대 지속이 오히려 애도의 진행을 어렵게 만들 수 있는데, 고인과의 유대를 지속하는 행위가 개인의 신념과

세계관을 손상시킴에 따라 자신의 삶에 상실 경험을 적절하게 통합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Neimeyer, 2006). 두 번째로, 애도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또 하나의 의미 재구성(meaning reconstruction) 과정이 포함된다. 의미 재구성 과정은 고인의 죽음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인식하는 것과 같은 이해하기, 사별 이후 고통 속에서도 성장의 지표를 찾기, 상실 경험에 대한 의미를 재구성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자신의 정체성 변화로 개념화될 수 있다(Bogensperger & Lueger-Schuster, 2014). 이러한 의미 재구성 작업을 통해 애도 정서의 표현과 심리적 재건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Marrone, 1997) 외상 후 성장이 촉진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Steffen & Coyle, 2010). 특히 의미 찾기 작업은 갑작스럽고 폭력적인 사별 이후에 경험할 수 있는 심리적 고통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Schaal et al., 2010).

한편 개인적인 대처 이외에도 사별을 경험한 유가족들은 가족 및 사회적 자원을 통한 공동 대처 방식을 택하기도 한다. 안전한 지지 집단은 사별을 경험한 유가족이 애도반응으로 인한 고통을 경감시키며 회복을 촉진할 수 있도록 돕는다(Schut et al., 2001). 또한 대형 재난 사고가 발생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사상자가 발생하였을 때, 유가족들과 지역사회 구성원이 한데 모여 정서적 교류와 정보 공유를 함으로써 상실로 인한 트라우마에 대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Walsh, 2007). 또한 유가족들은 단순히 사회적인 지지와 조력 뿐 만 아니라, 보다 전문적인 심리적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때 자신의 애도를 적절하게 다룰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Kreicbergs, Lannen, Onelov, & Wolfe, 2007). 이러한 점에서

상실을 경험한 사람들은 건강한 애도과정을 경험하기 위해 개인적 대처 뿐 만 아니라, 배우자나 생존자녀와 함께 하는 가족 차원에서의 대처, 다른 유가족들과의 상호작용, 대인관계 및 지역사회의 조력을 통한 대처 등과 같은 공동 대처를 활용하는 것은 애도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일 수 있다.

또한 애도 과정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고인의 죽음을 둘러싼 맥락적인 특성이 존재한다. 먼저 사별 경험이 갑작스럽게 발생한 사건이거나 의도적인 가해의 상황일 때, 고인의 죽음과 관련하여 끔찍한 장면에 대한 노출이 발생하였을 때, 고인이 아동일 때 사별로 인한 충격이 더욱 강렬할 수 있다고 보고된다(Green, 1990). 이처럼 고인의 죽음 자체에 외상적인 특성이 있을 때, 자연사에 비해 유가족의 비애 증상은 더욱 장기화될 수 있다(Parkes, 1998; Kaltman & Bonanno, 2003). 갑작스럽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자녀의 사별을 경험한 부모는 자신을 둘러싼 세계의 공정성에 대한 부정적인 신념을 갖게 될 수 있으며, 환경에 대한 신뢰와 안정,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감을 상실함에 따라(Mathews & Marwit, 2004), 심리사회적 회복으로 나아가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외상성 사별을 경험한 경우, 고인의 죽음을 인식하고, 상실 경험에 대해서 납득하거나, 죽음에서 의미를 찾는 것에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Davis, Wortman, Lehman, & Silver, 2000; Hibberd, 2013). 유가족이 상실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여전히 고인과 강렬한 유대와 애착관계를 지속하게 될 때 고통의 수준이 증가할 수 있으며(Neimeyer, Baldwin, & Gillies, 2006), 이로 인해 죽음을 둘러싼 상황과 고인에 대한 기억에 머무르며 강렬한 애도반응을

지속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

Meij 등(2008)은 죽음을 둘러싼 상황에 대해 불변 요인과 사별 경험 이후 변동 가능 요인을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불변 요인에는 고인의 죽음에 대한 원인이나 고인의 죽음이 발생한 위치 등이 해당되고, 변동 가능 요인에는 유가족이 고인의 시신을 확인하였는지의 여부 등이 해당된다. 특히 유가족들이 고인의 시신을 확인하거나 고인의 죽음에 대한 이유를 명확하게 인지하는 것은 정상적인 애도과정인 진행되기 위하여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데, 고인의 죽음에 대한 원인과 책임소재가 불분명할 때 정상적인 애도과정은 지연되고 비애 증상의 강도는 더욱 심화될 수 있다 (Keesee, Currier, & Neimeyer, 2008; Pauline, & Boss, 2009). 또한 고인의 죽음에 대하여 확신하지 못하고 생사여부를 알기 위하여 기다리는 과정은 유가족들에게 더욱 강렬한 디스트레스를 경험하게 할 뿐만 아니라, 애도과정을 지연시키거나 장기화시킬 수 있다(Kristensen, Weisæth, & Heir, 2010). 그 외에 유가족을 둘러싼 사회문화적 맥락도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데, 문화와 시대에 따라 각각의 유가족과 사회구성원들이 갖는 죽음에 대한 의미와 애도 표현방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Rosenblatt, 2008). 이러한 요인들은 사별 직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유가족에게 심리사회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처럼 사별 이후 유가족이 가족 구성원을 사별한 이후 당면하는 애도반응과 정서, 애도과정 및 방식, 다양한 애도 대처 방식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에서 사별을 경험한 유가족들을 대상으로 애도 경험을 탐색하는 연구가 수행되었으나(정형수, 이지영, 김소연, 양은주, 2014; Braun & Berg, 1994; Decinque et

al., 2006; Muller, & Thompson, 2003)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자녀를 사별한 유가족의 고유한 애도경험과 애도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심층적으로 탐색한 연구는 아직까지 수행되지 않았다. 특히 최근 한국사회에서 발생한 대형재난인 세월호 참사의 경우, 세월호 유가족들의 고유한 애도 경험과 트라우마를 파악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인 심리적 개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세월호 유가족의 애도 경험은 기존 애도 이론과 다른 고유한 애도과정과 애도경험으로 구성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세월호 참사로 인해 크나큰 인명피해와 더불어, 한국 사회와 정부의 구조적인 문제까지 드러난 점, 참사를 보도하는 미디어 노출이 유가족들에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 유가족을 둘러싼 여러 맥락적 특수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이내빈, 심기선, 안현의, 2017; 이홍표, 최윤경, 이재호, 이홍석, 2016). 국내에서 세월호 유가족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사별 이후 유가족들은 자녀를 향한 그리움, 자녀를 먼저 떠나보내고 계속 삶을 지속하는 것에 대한 생존자 죄책감, 분노 등의 애도반응을 경험하고 있었다(김은미, 김병오, 2018; 신명진, 2016). 세월호 재난 이후 1년이 흐른 시점에서 유가족의 생활 실태를 조사한 국내의 연구(박기묵, 2015)는 세월호 유가족의 삶을 신체, 심리, 관계적 측면에서 살펴봄으로써 유가족이 여전히 일상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세월호 유가족의 개인 내적 경험을 탐색한 연구에서도 여전히 부모들은 자녀 사별 경험으로부터 회복되지 못한 채 우울, 무기력, 분노 등의 심리적 문제 뿐만 아니라, 불면이나 통증 등의 신체적 문제까지 경험하고 있으며(이동훈, 이춘화, 신지

영, 강민수, 서은경, 2017a), 사회 구성원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한편 그들과 갈등을 빚고 비난과 낙인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동훈 등, 2017b). 세월호 유가족들은 세월호 재난 직후, 그리고 세월호 재난으로부터 1년이 흐른 시점과는 또 다른 애도과정의 양상을 경험하고 있다. 그러므로 시점별로 세월호 재난을 재조명하며 유가족의 애도경험을 파악함으로써 재난과 사별로 인한 심리적 외상에 대한 장기적인 애도 상담 지원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세월호 재난으로 가족구성원을 사별한 유가족들의 애도경험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사별 경험 이후 그들의 애도과정이 어떠한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부모로서 자녀 사별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험을 하고 있는지를 탐색하고, 질병으로 인한 사별, 자연사 등과 같은 여타의 사별경험과 달리 세월호 재난으로 인한 사별에서 나타나는 고유한 애도경험을 파악하고자 한다. 개인의 심리 및 정서의 심층적인 이해를 위하여, 연구자들은 본 연구에서 면담을 통한 질적 연구를 선택하였다. 본 연구는 근거이론 접근을 적용하여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인해 자녀를 사별한 부모의 애도경험을 탐색하고, 기존의 애도이론과의 공통성, 특수성을 파악함으로써 세월호 유가족의 고유한 애도경험에 대한 이론적 이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월호 재난 이후 자녀와 사별한 부모들의 애도 과정은 어떠한 단계를 거쳐 발전하였는가? 둘째, 세월호 재난으로 자녀를 사별한 부모들의 애도 과정에 영향을 미친 것은 무엇인가? 셋째, 세월호 재난으로 자녀를 사별한 부모들의 애

도 과정에서 드러난 애도 단계의 특성은 어떠한가?

방 법

자료수집과정

본 연구에서는 2016년 5월부터 8월까지 세월호 분향소, 안산시에 위치한 상담센터, 연구참여자의 자택 등에서 실시되었던 심층면담자료를 본 연구 목적을 위하여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심층면담자료의 수집과정은 다음과 같았다.

심층면담에 참여한 총 17명의 연구참여자들(남성 7명, 여성 10명)은 의도적 표집방법(purposive sampling)과 눈덩이 표집(snowball sampling)을 활용하여 모집되었었다. 먼저 연구자들은 의도적 표집방법을 바탕으로 416 유가족 협의회에 소속되어 세월호 유가족 간담회에 참석한 연구참여자들에게 직접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연구참여 동의를 받은 후 심층면담을 수행하였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눈덩이 표집방법을 활용하여 심층면담에 참여한 세월호 유가족들로부터 다른 세월호 유가족들을 추천받아 연구참여 동의를 받은 후 심층면담을 수행하였었다. 연구자들은 심층면담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참여자들의 심리사회적 경험, 부부관계의 변화, 생존자녀의 양육, 아버지 삶의 변화, 자조집단 경험 등 구체적인 삶의 모습들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향후 재난 유가족들을 대상으로 하는 애도 상담 및 실질적 심리 지원을 위해서는 세월호 재난 유가족의 애도경험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정리하고, 변화 양상을 심층적으로 탐색하는 연

구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재난 피해자들의 애도 과정에 대한 이론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어야 할 필요성이 요구되는 바, 유가족의 애도 경험과 애도 과정이라는 주제에 적합한 내용을 심층면담자료로부터 추출하여 연구참여자들의 애도 경험을 탐색하였다.

연구참여자

본 연구에서 활용된 심층면담자료의 연구 참여자들은 다음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보고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남성 7명, 여성 1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모든 연구참여자들은 안산에 거주하고 있었다. 세월호 재난으로 외동자녀를 사별한 1명을 제외하면 총 16명이 1~3명의 생존자녀를 양육하고 있었다. 또한 15명의 연구참여자가 배우자와 함께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2명의 연구참여자는 이혼한 상태였다. 연구 시작 전 연구참여자들에게는 연구목적과 연구과정에 대하여 설명하고 연구참여동의서를 받았다. 연구참여자에게 심층면담자료는 연구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알렸으며, 연구참여자의 개인 신상정보는 모두 무기명으로 처리된다는 것을 고지하였다. 또한 연구참여자가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연구참여를 철회할 수 있음을 알렸다. 본 연구는 연구자들이 소속된 기관의 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로부터 연구수행과 연구윤리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2016-05-007-001).

분석절차

본 연구에서는 세월호 재난 유가족의 애도

경험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Strauss와 Corbin(1990)의 근거이론(grounded theory) 방법을 통해 접근하고자 하였다. 근거이론 방법은 사례를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행동변화를 설명해주고 상호작용을 통한 매커니즘을 분석하는데 유용하므로(김진숙, 이혁구, 이근무, 2012). 세월호 재난이라는 참사 이후, 가족구성원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경험함에 따라 삶이 뒤바뀐 유가족들의 애도경험을 심층적으로 탐색하는데 근거이론 접근 방법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심층면담 자료는 Strauss와 Corbin(1990)이 제안한 개방코딩(open coding), 축코딩(axial coding), 선택코딩(selective coding)에 따라 분석되었다. 우선 상담전공 교수, 상담전공 박사과정 및 석사과정으로 이루어진 연구자들은 연구참여자들의 구술자료를 분석한 내용의 개념 명명과 범주화가 적절하게 수행되었는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였다. 주 1~2회 연구팀 회의를 수행하며 연구자들이 각각 분석한 개념과 범주를 취합하여 표를 작성하였다. 연구자들의 분석과 합의로 도출된 개념과 하위범주, 범주를 활용하여 패러다임 모형을 구성하였다. 또한 17명의 연구참여자들의 사례에서 상호작용, 작용의 범주와 하위범주들을 고려하여 시간의 변화에 따른 현상의 변화를 탐색하는 과정분석을 수행하였다. 근거이론 접근은 연구자들의 이론적 통찰을 통해 자료를 정리하는 것을 강조하므로(Strauss & Corbin, 2001) 이러한 과정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자들의 해석을 정리한 다층과정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타당성 검증

본 연구의 분석자료의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Lincoln과 Guba(1985)의 평가 기준 중 중립성, 일관성, 사실적 가치를 적용하여, 상담심리 전공 교수 1명, 상담심리 전공 박사과정 2명, 상담심리 전공 석사과정 1명이 수차례의 논의를 거쳐 면담자료를 분석하였다. 중립성이란, 연구자들이 자료분석과정과 결과기술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편견을 배제하고 중립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의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사별과 애도, 재난을 주제로 발표된 선행연구 및 관련 문헌들을 연구자들이 함께 리뷰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수행하는 삼각검증 과정을 거쳤다. 일관성이란, 자료분석과 기술에 일관성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수의 질적연구 논문을 게재하고 질적연구방법론에 관한 워크숍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회복지분야의 질적연구 방법론 전문가(박사) 1인에게 자료분석내용에 대한 감수를 받았다. 사실적 가치란,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에 관한 기술이 실제 현상을 적절하게 서술하고 있는지를 의미한다. 사실적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분석 내용이 세월호 유가족들의 경험 세계를 잘 대변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세월호 유가족들이 직접 참여한 인터뷰, 관련 신문기사와 보도자료를 검토하고 분석자료와 대응해보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또한 기존에 애도, 사별 주제와 관련하여 제시된 애도이론과 본 연구의 결과의 일치성과 특수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결 과

세월호 재난으로 자녀를 잃은 부모의 애도 과정에 대한 개방코딩

본 연구에서는 면담자료를 줄 단위로 분석하고 개념군을 발견하여 이를 유사한 개념끼리 묶어 좀 더 추상화된 하위범주를 구성하여 최종적으로 150개의 개념과 53개의 하위범주, 그리고 23개의 범주를 구성하였다. 개방코딩에서 나타난 개념과 하위범주 및 범주를 중심으로 연구 참여자들의 애도과정에 대한 구체적 내용들을 축코딩에 제시되는 각 조건(인과, 맥락, 현상, 중재, 상호작용, 결과) 별로 정리하면 표 1로부터 표 9와 같다. 본 연구의 중심이 되는 현상에 대한 설명이 패러다임 모형의 순서에 따라 인과-맥락적 조건 뒤에 기술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참여자들은 세월호 재난이 2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자녀의 죽음으로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분노에 압도된 생활을 하고 있다는 유가족인 참여자의 애도경험에서 나타나는 중심현상을 먼저 밝힌다.

인과적 조건

인과적 조건은 해당 현상이 왜 일어났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즉 현상의 원인에 해당된다. 인과적 조건은 근거이론과 패러다임 모형 전체의 출발점에 해당된다. 본 연구의 현상은 세월호 재난으로 자녀를 잃은 지 2년이 되었지만 유가족은 여전히 슬픔과 분노에 압도된 생활을 하고 있음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드러난 현상의 인과적 조건으로는 ‘갑자기 들이닥친 재앙’과 ‘믿을 수 없는 자녀의 죽음’이 나타났다.

표 1. 세월호 재난으로 자녀를 잃은 부모의 애도 과정에 대한 인과적 조건

개념	하위범주	범주
가정형편이 조금씩 안정되며 행복해지고 있는 순간에 찾아온 자녀의 죽음이었기에 더욱 망연자실함	행복의 순간 찾아온 자녀의 죽음	갑자기 들이닥친 재앙
새로 짓고 있는 집으로 이사를 앞두고 행복한 생활을 기대하고 있었던 시기에 일어난 자녀의 죽음이라서 더욱 슬프고 고통스러움		
즐거운 수학여행 사고로 인한 자녀의 죽음이었기에 더욱 받아들이기 어려움		갑자기 들이닥친 재앙
내 아이를 잃을 것이라고 상상도 해보지 못한 일이 벌어짐	날벼락 같은 자녀의 죽음	
영원할 것이라고 당연하게 믿었던 가족의 존재가 무너져 황망한 마음 자녀가 병을 앓다가 떠났으면 마음의 준비라도 했을 텐데 갑작스레 닥친 자녀의 죽음이 원통함		
사고 지역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수영을 잘하는 자녀였기 때문에 살아 아울 것이라는 희망과 믿음이 있었음	살아 돌아오리라는 믿음이 무너짐	믿을 수 없는 자녀의 죽음
유달리 씩씩하고 건강한 아이였기 때문에 잘못 됐을 리가 없다는 믿 음을 가지고 진도로 내려감		
남편이자 친구처럼 의지하며 지냈던 자녀가 죽음으로 인해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움	누구보다 소중한 자녀의 죽음	
부모, 신앙과도 비견될 수 없이 소중한 자녀가 죽음		

갑자기 들이닥친 재앙

연구 참여자들에게 자녀의 죽음은 날벼락과도 같은 일이었다. 가족의 존재는 영원할 것이라고 당연히 믿어왔던 연구 참여자들은 자녀를 잃을 것이라는 상상조차 해 본 적이 없는 상태였다. 더욱이 자녀들은 즐거운 수학여행을 떠났던 것이었기 때문에 자녀의 죽음은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

이러한 갑작스런 자녀의 죽음은 연구 참여자들이 꿈꿔왔던 행복한 생활이 막 시작되려는 찰나에 일어났다. 새로 지은 집에 입주하기 직전, 가정형편이 점차 안정되기 시작하는 순간 등 행복의 순간에서 발생한 생각지 않은 자녀의 죽음은 연구 참여자들에게 더욱 슬프

고 고통스러웠다. 참여자들은 차라리 질병으로 인해 치료 중에 자녀가 죽었다면 마음의 준비라도 했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갑작스러운 자녀의 죽음에 황망함과 동시에 원통해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은 자녀들이 이러한 행복을 경험해보지도 못하고 죽은 것에 대해서 미안함을 가지고 있었다.

“어느 날 그냥 갑자기 수학여행 즐거운 길에 아이가 그렇게 된 거잖아요. 00는 수학여행을 너무 즐겁게 생각하고 갔을 거라구요. 너무 좋은 추억을 만들려고.” (연구참여자 11)

믿을 수 없는 자녀의 죽음

연구 참여자들은 사고 소식을 접하고 나서도 자녀가 살아 돌아오리라는 희망을 끈을 놓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지역을 잘 알지 못했지만 연구 참여자들이 이러한 희망을 가진 이유로는 자녀가 수영을 잘 하였음, 밝고 씩씩한 아이였기 때문에 역경을 이기고 돌아올 것임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연구 참여자들의 바람과 희망과는 달리 돌아오지 못한 자녀의 죽음은 이러한 믿음을 무너지게 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에게 자녀의 죽음은 어떤 슬픔에 비할 수 없는 것이었다. 심지어 참여자들은 남편이자 친구처럼 지내왔던 자녀대신에 남편이나 부모가 죽었으면 이렇게까지 슬퍼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이처럼 연구 참여자들에게 자녀는 신랑, 부모보다 더욱 소중한 존재였기 때문에, 연구 참여자들은 자녀의 죽음에 더욱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였다.

“걱정했지만 이 사람하고는 애는 분명히 괜찮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내려갔죠. 잘못됐을 거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워낙 밝고 씩씩해서 우리 00는 걱정 안 해도 돼. 그랬는데.” (연구참여자 6)

맥락적 조건

맥락적 조건은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상황을 의미한다. 즉 참여자들의 애도경험을 둘러싸며 관련되어 있는 요소로서 광범위한 상황적 요인에 해당된다. 본 연구에서는 자녀의 죽음 앞에 무능한 자신을 비난함, 생계가 어려워짐, 사회와의 단절로 인한 고통, 생존자녀의 반동적 이탈로 인한 염려, 생존자녀 양육의 어려움, 안산 지역 주민들의 반응,

부부 및 가족관계의 갈등, 학교 및 교사에 대한 분노, 언론의 지지와 도움을 받지 못함, 국가에 대한 배신감이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적 조건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맥락적 조건들을 대상 및 주체에 따라 개인-가족-지역사회-국가 순으로 각각 표로 구분하여 기술하였다.

자녀의 죽음 앞에 무능한 자신을 비난함

연구 참여자들은 자녀가 죽어가고 있던 순간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음에 괴로워했다. 또한 자녀의 죽음 이후 재난의 원인을 밝히고자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지만 자녀의 죽음에 관한 이유를 아무것도 밝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 이러한 점들은 연구 참여자들로 하여금 자녀의 죽음의 순간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느끼게 하였다. 이로 인해 연구 참여자들은 자녀의 죽음 앞에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무력감을 느끼고 있었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은 무력감 외에 자녀의 죽음과 관련하여 죄책감으로 괴로워하고 있었다. 죄책감은 자녀를 안전하게 보호해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점과 자녀의 죽음을 막지 못했다는 점, 새끼(자녀)도 못 지키는 사람을 부모라고 할 수 있는가와 관련되어 연구 참여자들은 부모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러한 죄책감이 연구 참여자들로 하여금 자녀 죽음의 원인을 밝히고자 하는 활동에 참여하도록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00가 동영상 속에서 애기를 해요. 제 이름을 부르면서 아빠, 제가 죽을 것 같

아요. 그 생각이 제 머릿속을 맴돌아요. 나는 그 때 과연 뭘 하고 있었을까. 내 아이는 죽음과 사투를 벌이는 상황에서 아빠에게 메시지를 남기는데 저는 그 아이에게 해준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연구참여자 2)

생계가 어려워짐

연구 참여자들은 자녀의 죽음 이후로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런 생각들은 직장과 직무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구 참여자들은 이전에는 진급 욕심과 함께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으나, 자녀의 죽음 이후에는 사업을 확장시키기 보다는 하청만 주거나, 술값을 벌여오기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직업 활동을 무의미한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

한편으로 연구 참여자들은 자녀의 죽음에 따른 슬픔과 고통, 자녀 죽음의 원인을 밝히 고자 하는 활동 등으로 직장에서 이탈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모습들에는 재난 이후로 자녀를 잃은 충격과 슬픔으로 인해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거나 운영하는 사업체를 중단하는 모습이 포함되었다. 이는 곧 유가족의 경제적 수입원이 사라짐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경제적 원천이 사라진 상태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보험금 혹은 보상금 혹은 지원금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유가족의 생계를 위해 자녀의 죽음 이후 아버지들은 재취업을 희망하고 있었지만 중년의 아버지들이 취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참여자들은 한정된 지원금을 활용하여 생계를 꾸려나가거나 준비 없이 술집과 같은 사업을 시작하였기 때문에 유가족의 생활을 위한 돈은 점차 고갈되고 있

는 상황으로 나타났다.

“승진해서 월급도 더 받고 애들도 잘 키워야지라는 마음이 예전에는 있었지만 이제는 희망도 없고 욕심도 안 생기고. 일하면 뭐하나.” (연구참여자 14)

사회와의 단절로 인한 고통

회사를 계속 다니고 있는 연구 참여자들의 경우, 직장 내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유가족에게 주어지는 작은 혜택에도 시기, 질투하거나 비꼬는 직장 동료들의 모습과 자녀의 죽음 이후로 서로의 관심사가 너무나 달라져 버린 동료들의 모습으로 인해 연구 참여자들은 직장 내에서 마음 둘 곳이 없었다. 이러한 모습들은 연구 참여자들이 속한 직장 사회에서 소외받으며 단절된 상황에 놓여 있음을 보여준다.

연구 참여자들은 직장 동료뿐만 아니라 지인, 친인척과의 관계도 단절되었음을 보고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이제 그만해라 혹은 산 사람은 살아야지와 같은 지인과 친인척들로부터의 조언과 위로에 오히려 화가 나고 상처를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죽은 자녀를 떠오르게 하는 가족 행사에도 발길을 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연구 참여자들은 지인과 친인척들의 예상과는 달리 죽은 자녀로 인한 슬픔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으며, 경솔한 말과 성급한 조언 및 위로 등으로 슬픔과 고통을 더욱 유발시키는 주변의 지인과 친인척들로부터의 교류를 끊은 채 생활하고 있었다.

“부모를 일찍 잃어 이모한테 용돈도 드리면서 부모처럼 생각을 했거든요? 1년

표 2. 세월호 재난으로 자녀를 잃은 부모의 애도 과정에 대한 맥락적 조건(개인 차원)

개념	하위범주	범주
자녀가 죽어가고 있는 동안 자신은 아이에게 아무것도 해 준 것이 없었다는 것이 한스러움	무력감	자녀의 죽음 앞에 무능한 자신을 비난함
자녀 죽음의 원인을 밝히고자 하는 활동에 참여함에도 그 이유를 아무것도 밝히지 못하고 있음		
어떤 일이 있어도, 자녀를 지켜 줄 것이라고 약속했던 기억이 떠올라 괴로움		
자식을 지켜주지 못한 것은 부모의 잘못이라고 생각함	죄책감	
내 새끼도 못 지키는데 내가 부모로서 자격이 있는가라는 얘기를 자주 함		
하청만 주고 슬값만 벌여오면 된다는 식으로 생각하게 되어 향후에도 직장생활이 지속될 수 있을지 불투명해짐	직업 활동이 무의미해 짐	
이전에는 직장에서 진급 욕심과 책임감이 많았으나 416 이후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는 생각을 하게 됨		
자녀 죽음의 원인을 밝히고자 하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과 상관없이 사고 이후 많은 가정의 가장들이 직장을 잃었기 때문에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음	직장의 상실로 인해 경제적 수입원이 사라짐	생계가 어려워짐
자녀 잃은 슬픔에 회사 운영을 포기 함		
특별한 기술이 없는 중년의 아버지들은 재취업이 더욱 어려운 상황임		
자녀 잃은 슬픔으로 인해 도저히 마음이 잡히지 않아 취업과 퇴사를 반복함		
지원금과 보상금으로 생활을 유지하다 보니 생활비가 점점 바닥 남	점차 고갈되는 생활비	
아무런 준비 없이 당구장, 술집과 같은 사업을 시작하거나 부동산 투기를 하여 재산을 탕진함		
유가족에게 주어지는 자그마한 혜택에도 시기, 질투하는 직장동료들	어디에도 마음 둘 곳 없는 직장 내 모습	
자녀의 죽음 이후 서로의 관심사가 너무나 달라져버렸기에 이전과는 달리 직장에서 어울릴 수 없는 유가족들		
자녀 죽음의 원인이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이제 그만하라는 지인과 친인척들에게 화가 나서 더 이상 만나지 않음	지인, 친인척과의 단절	사회와의 단절로 인한 고통
산 사람은 살아야지라며 쉽게 위로하는 지인과 친인척들의 말이 전혀 위로되지 않고 화가 남		
자녀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과 죽은 자녀를 떠오르게 하는 가족행사에 참석하지 않음		

표 3. 세월호 재난으로 자녀를 잃은 부모의 애도 과정에 대한 맥락적 조건(가족 차원)

개념	하위범주	범주
수업시간에 책상에 엎드려만 있거나, 시험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아 학업성적이 떨어짐	학교생활에 대한 흥미의 감소	생존자녀의 반동적 일탈로 인한 염려
대학 재학 중 학업을 포기하거나 휴학을 고려함		
모범생이었던 자녀가 친구들과 어울리며 밤늦게 들어오는 모습을 보임	집 밖에서 방황하는 자녀	생존자녀의 반동적 일탈로 인한 염려
자녀가 이삼일씩 집에 들어오지 않음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컴퓨터 게임에만 몰두	스마트 폰과 게임에만 몰두하는 자녀	생존자녀의 반동적 일탈로 인한 염려
8시 이후부터 잠들기 전까지 스마트폰으로 게임하며 시간을 소비하는 자녀		
지금 현재로써의 제 1순위 걱정은 생존 자녀의 회복과 양육의 문제	생존자녀에 대한 걱정과 관심	생존자녀 양육의 어려움
생존자녀가 형제자매의 죽음을 말할 수 없이 괴로워하여 학업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음		
형제, 자매의 죽음 이후 이 세상에 홀로 남아 살아가게 된 생존자녀가 걱정 됨	생존자녀에 대한 부모의 방임	생존자녀 양육의 어려움
자녀의 죽음으로 인한 충격과 슬픔으로 생존자녀의 학업이나 미래에 대한 관심이 무의미하게 느껴져 신경을 쓰지 않게 됨		
자녀 죽음의 원인을 밝히고자 하는 활동으로 인해 생존자녀에게는 신경을 쓰지 못함	자녀의 죽음으로 위기를 맞은 부부	부부 및 가족관계의 갈등
사고 이후 이혼한 가정이 많고 이혼을 하지는 않았더라도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가정은 거의 없음		
자녀를 잃은 세월호 유가족 부부들은 부부간 소통이 단절되거나, 갈등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부부관계를 개선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방치한 채로 살아감	가족 내 소통이 사라짐	부부 및 가족관계의 갈등
자녀의 죽음 이후 서운하거나 마음 상하는 일이 있을 때면 농담으로도 하지 않던 '헤어져, 이혼해'라는 말들이 너무나도 쉽게 생각남		
가족 구성원 모두가 따로 행동하는 일상의 반복과 함께 식사자리에서도 함께 이야기 하지 않는 가족	가족 내 소통이 사라짐	부부 및 가족관계의 갈등
사고 이전에는 집안 분위기가 시끌벅적 했으나, 사고 이후 대화가 사라져 조용해 짐		

썸인가? 이제 그만해라 얘기하시더라고요 (중략) 이모 아들 잃었을 때 이모도 한번 그만해보시라고. 그 다음부터 찾아가지 않아요. 어떻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연구참여자 11)

생존자녀의 반동적 일탈로 인한 염려

연구 참여자들은 자녀의 죽음 이전까지 생존 자녀에게서 관찰되지 않았던 모습들이 생존 자녀에게서 나타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 학교 및 학업과 관련하여서는, 수업 중에 책상에 엎드려 있거나 시험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음, 학업을 포기하거나 휴학을 고려중인 대학생 생존자녀의 모습 등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모습들로 볼 때 형제자매의 죽음은 생존자녀들로 하여금 학교생활에 흥미를 잃어버리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여겨진다.

생존자녀들은 학교생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일탈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이 이제껏 경험하지 못했지만, 자녀의 죽음 이후 가정에서 관찰되기 시작한 생존자녀의 또 다른 모습으로는 늦어지는 귀가시간과 며칠씩 지속되는 외박이 보고되었다. 이러한 모습들이 생존자녀의 이전 모습에서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집 밖으로 방황하는 모습들 역시 형제자매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한 반동적 일탈로 여겨진다.

생존자녀들은 집에서 스마트 폰과 게임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게임을 하거나 잠들기 전까지 스마트 폰에 열중하는 생존자녀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매우 염려하고 있었다. 생존자녀의 이러한 모습들은 형제자매의 죽음과

관련하여 자신만의 슬픔과 시간을 소비하는 수단으로 스마트폰과 게임이 활용된 것으로 여겨진다.

“학원 다 끊고 학교에 가면 그냥 책상에 엎드려 있고 중간고사 점수는 엉망이고, 아픈 있는 아이에게 공부하라는 말은 할 수 없고(중략) 성격이 소심하고 범생이 스타일이라 학교 집 밖에 모르는 아이인데 친구들과 12시 넘어서 돌아다니고, 키우면서 생전보지 못한 모습들.” (연구참여자 9)

생존자녀 양육의 어려움

연구 참여자들에게 생존자녀의 회복과 양육의 문제도 매우 중요한 관심사로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들과 마찬가지로 충격과 슬픔을 겪고 있는 생존자녀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다. 여기에는 형제자매 없이 홀로 살아가게 될 생존자녀의 미래에 대한 걱정도 포함되었다.

하지만 연구 참여자들은 생존자녀에게 예전과 달리 공부 해라와 같은 별다른 지도나 훈육은 하지 않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이는 생존자녀에 대한 참여자들의 걱정과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 예기치 못한 자녀의 죽음으로 인해 생존자녀 역시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음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반면, 몇몇 연구 참여자들은 생존자녀를 돌보고 양육함에 있어 신경 쓰지 못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이유에는 갑작스러운 자녀의 죽음이 가져온 충격으로 인해 생존자녀의 미래에 대한 관심에 무관심함, 자녀 죽음의 원인을 밝히고자 하는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생존자녀에게는 신경 쓰지 못함이 포함되었다. 즉, 연구 참여자

표 4. 세월호 재난으로 자녀를 잃은 부모의 애도 과정에 대한 맥락적 조건 (지역사회 차원)

개념	하위범주	범주
안산지역 주민들은 타 지역 주민들에 비해 오히려 더 냉담하고 비협조적인 것처럼 느껴짐	기대와 달리 오히려 냉담한 지역주민	안산지역 주민들의 반응
지역주민들이 분향소 운영 및 현수막 설치 등의 유가족 활동에 반대하는 것을 보고 분노함		
자식이 죽었음에도 보상금과 여행자 보험을 받아 로또를 맞았다며 얼마를 받았냐고 물어보는 안산의 시민들	자녀의 죽음을 돈으로 평가하는 지역 주민들	
돈보다 진실이 우선인 유가족에 비해 돈이 가장 우선인 것처럼 보이는 안산지역 사람들의 시각		안산지역 주민들의 반응
넉넉하게 사는 사람들이 적고 타 도시에 비해 외지에서 유입된 사람들이 많은 안산이라는 공업도시의 특성으로 인해 보상금 받는 것을 시기질투하고 지지해주는 사람들도 하나둘씩 등을 돌림		
세월호 때문에 지역경제가 죽었다고 말하는 안산 사람들로 인해 억울함을 느낌	피해자인 유가족이 도리어 비난받음	
우리 애들이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혐오스러운 교실을 치워 달라며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을 하는 동네 주민들과 주변 학부모들로 인해 상처를 받음		
교장이 최종결정권자로서 출발당일 안개가 심했음에도 수학여행을 취소시키지 않은 것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진행되지 않은 것에 분노함	의무를 다하지 않은 학교를 향한 분노	학교 및 교사에 대한 분노
수학여행에 대한 교통편으로 비행기 대신 배를 선택하는 과정을 학부모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4.16이후 사고관련 사안들에 대하여 아이들에게 책임을 돌리며 의무를 다하지 않는 학교와 교사의 모습에 실망함		
사고 이후 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유가족의 바람이 반영 되지 않는 학교의 모습	사고 이후 처리과정이 미흡한 학교	
유가족의 시선과 요구에 미흡한 생존 교사 및 학교의 소극적 대처방식		
형식적인 상담실 운영,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담실		

들은 생존자녀를 방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가 신경을 안 써주는 거죠 어떤 때

는 신경 안 쓰고 공부도 요즘은 하란 소리 안하고 니인생 니가 살아라. 00이 보내고 나서는 공부하란 소리를 안 해 버려요.” (연구참여자 3)

부부 및 가족관계의 갈등

자녀의 죽음은 연구 참여자들의 부부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들은 재난 이후 이혼한 가정이 많음과 이혼을 하지 않았지만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가정이 많지 않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부부간 소통이 단절되고 갈등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서운한 일이 있거나 마음이 상할 때면 상대방에게 헤어져, 이혼해라는 말이 쉽게 생각난다는 한 연구 참여자의 보고는 자녀의 죽음이 가정을 유지하고 부부관계의 지속에 부여하는 의미도 퇴색시킨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자녀의 죽음이 가져온 변화 가운데 하나는 가족 구성원의 소통의 사라짐이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자녀의 죽음 이후 가족 구성원 간에 대화가 사라졌으며 일상에서 모두가 각자 개별적으로 행동하는 모습들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 부부관계만이 아니라 가족 역시 위기를 맞이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은 거의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가정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실제 이 일 이후에 이혼한 분도 많고 이혼까진 아니지만 이전 같은 생활을 하는 건 거의 불가능..” (연구참여자 8)

안산지역 주민들의 반응

해당 지역에 거주하며 지역 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수백 명의 학생들이 한 순간에 사망한 지역 사회의 큰 슬픔이자 재난임에도 지역 주민들의 반응은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오랜 시간 자녀와 함께 살아왔던 지역이라는 점에서 참여자들은 내심 지역 주민들의 협조와 이해를 예상하고 기대한 것

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와 달리 안산 지역 주민들은 오히려 냉담하고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였으며 따라서 연구 참여자들은 자녀의 죽음 및 자녀 죽음의 원인을 밝히고자 하는 유가족의 활동과 관련하여 안산 지역 주민들이 보여주는 모습에 분노하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공업도시라는 특징을 가진 안산 지역에 대해 생활이 넉넉한 도시는 아니라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지역의 특성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은 자녀의 죽음과 그 슬픔에 대해 위로하고 공감하기 보다는 유가족들이 받는 보상금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때때로 지역주민들은 자녀의 죽음과 로또 당첨을 비교하기도 하였으며, 재난의 원인을 밝히는 것보다는 보상금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연구 참여자들이 자녀 죽음의 원인을 알고자 하는 것에 우선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들도 보고되었다. 지역 주민들은 보상(힘)금과 그 액수가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하나둘씩 참여자들로부터 등을 돌리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지역주민들의 생각과 모습들에 참여자들은 다시 상처받았다.

이외에도 안산 지역 주민들은 지역 사회의 경기 침체의 원인을 세월호 유가족의 탓으로 돌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단원고 재학생의 학부모들은 교실 존치 문제와 관련하여서 혐오스럽고 무서운 교실의 존치로 인해 오히려 자신들의 자녀들이 피해를 받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즉, 세월호 재난의 피해자인 참여자들은 어느 순간 지역사회에서 오히려 비난받는 가해자가 되어 있었다.

“안산은 공업 도시라 생활이 넉넉한 분

표 5. 세월호 재난으로 자녀를 잃은 부모의 애도 과정에 대한 맥락적 조건 (언론 및 국가 차원)

개념	하위범주	범주
재난 초기 전원 구조되었다는 뉴스나 수많은 잠수사와 헬기가 투입되어 구조하고 있다는 거짓된 언론 보도를 듣고 언론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깨짐		
뉴스에서 유가족이 경험하고 있는 것과는 너무나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세월호 재난을 겪으며 뉴스를 보지 않게 됨	믿을 수 없는 언론 보도	
청해진 해운에 보상권을 청구하며 소송을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해 마치 유가족들에게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인 줄 알고 비난을 받을 때면 분통이 터짐		
언론에서 진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가족들이 전국을 다니며 간담회를 열어 진실을 알리고자 함		
언론에서는 공권력에 저항하는 폭력적인 집회를 부각하여 국민들에게 세월호 재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줌		언론의 지지와 도움을 받지 못함
많은 보상금을 받는 일부의 대상을 마치 유가족 전부가 수령하는 것처럼 보상금에 초점을 맞추어 보도하는 언론	분란을 조장하는 언론	
배 보상에 관한 내용을 언론에서 반복적으로 방송하여 많은 국민들이 세월호 재난을 돈 문제로 바라보며 외면함		
언론들이 4월 16일 배 침몰시점부터 여행자 보험금 이야기에 초점 맞추어 보도하는 것을 보고 분노를 금치 못함.		
자녀 죽음의 원인을 밝히고자 하는 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영상들을 분명히 촬영하였음에도 편집되어 방송에서 내보내지지 않음	우리가 믿는 진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언론	
언론에서 세월호 관련 진행소식들을 전달하지 않아 SNS를 사용하지 않거나 관심이 없는 국민들은 모두 끝난 것으로 알고 있음		
국가와 정부의 보여주기식 지원 및 약속을 지키지 않는 모습으로 인해 실망하고 불신하게 됨	국가에 대한 실망감과 배신감	
예정보다 앞서 지원을 중단하는 등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부를 신뢰할 수 없음		
국회의원들과 약속했던 많은 부분들이 지켜지지 않거나 애초의 계획과는 다르게 진행되고 있음		
2년이 넘도록 제대로 된 게 없는 걸 피부로 느끼면서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불신이 가득 참	국가의 무능함으로 인한 분노	국가에 대한 배신감
아이들을 구하지 못한 정부의 무능력함과 이후 자녀 죽음의 원인을 밝히고자 하는 활동도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정부의 모습에 화가 남		
국가는 세월호 재난의 원인을 밝히는 일보다 유가족에게 보상(돈)으로만 해결하려는 것처럼 보여 분노함		
국회의원들은 단지 월급쟁이 일 뿐, 소명의식도 없고 국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지도 않는 것처럼 보임	국가적 책임의 부재	
책임을 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음에 분노를 말로 표현 할 수가 없음		
피해자의 입장과 시각에서 참사에 대처하고 사후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함		

이 거의 없어요. 한 달 벌어 한 달 살고. 대한민국은 돈 얘기 하면 끝이에요. 지지 해주던 마음도 여행자금 1억 이러니까 떠나버리죠. (중략) 진짜 입에 담지 못하는 말들을...재학생 부모들이 우리를 가해자로 보는 거지. 너네 자식들 때문에 우리 애들이 피해 받았다 (중략) 교실 계속 놔놔자 혐오스럽다 무섭다.” (연구참여자 5)

“아무 상식 없는 저희가 생각했을 때도 안개가 꺾기 때문에 못 갈까다 생각했던 부분인데 오직 세월호 배만 출항했잖아요. 그날 학교에 제일 결정권 있는 교장이 수학여행 가지말자고 결정만 했어도 아이들이 그런 일을 겪지 않았잖아. 그런 교장한테 조사나 처벌도 없어요.” (연구참여자 9)

학교 및 교사에 대한 분노

연구 참여자들은 수학여행 당일 안개가 끼었던 기상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권자인 교장이 수학여행을 취소하지 않았다는 점과 최초 설명회를 통해 수학여행을 위한 교통수단을 선택할 때 선박을 통한 여행의 위험성에 대해 사전 고지하지 않은 점에 대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따라서 결정권자인 교장, 설문조사에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사고 이후에는 죽은 자녀들의 선택이었음을 강조하는 학교 및 교사들에 대해 실망하고 있었으며 적절한 처벌이 진행되고 있지 않음에 분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들에 따르면 학교는 자녀의 죽음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이를 막지 못한 학교의 무책임한 모습 외에도 자녀의 죽음 이후 처리과정에서도 미흡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구 참여자들은 학교의 미흡한 처리과정에도 실망하고 분노하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이 보고한 학교의 미흡한 모습에는 자녀의 시신이 미처 수습되기 전, 사망 신고를 못한 상황에서 자녀들의 물건과 교실을 정리하는 문제, 생존하여 돌아온 교사들의 소극적인 대처방식, 생존 자녀를 위해 제공되어야 할 치료 지원의 부족함이 포함되었다.

언론의 지지와 도움을 받지 못함

연구 참여자들은 언론에 대해 불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고 직후 전원구조라는 오보가 제공된 것으로부터 시작, 당사자인 참여자들이 경험하고 있거나 해당되는 내용들과는 다른 사실들이 계속해서 보도되고 있기 때문이었다.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보도하는 언론을 참여자들은 믿을 수 없었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은 언론들이 국민들과의 분란을 유발시키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는 언론이 재난 직후부터 돈 문제에 초점을 맞춘 방송들을 계속적으로 보도함으로써, 돈에 민감한 사람들의 정서를 자극했다고 생각하는 참여자들의 인식에서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연구 참여자들은 공권력에 저항하는 폭력적인 집회를 부각하여 방송하는 언론의 태도 역시 국민들에게 유가족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더불어 연구 참여자들은 언론이 제 역할을 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분명히 촬영을 했음에도 편집되어 방송에서 내보내지 않거나 세월호 관련 소식들을 전하지 않아 SNS 외에는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알 수 없는 상황이 이러한 인식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연구참여자들은 언론의 지지와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와서 보고 분명히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방송에 내보내지 못하고. 나중에 사과는 했지만, 뛰 워선에서 짤라서 내보낼 수 없었다고 하지만 참 비겁한 거죠. 아휴” (연구참여자 7)

국가에 대한 배신감

연구 참여자들은 세월호 재난 및 자녀의 죽음과 관련하여 진행되고 있는 처리 과정들이 약속과는 다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이처럼 사전 약속과는 다른 처리과정에 연구 참여자들은 국가에 대한 실망감과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보여주기식 지원을 하거나 진행과정에서 약속

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인데, 참여자들에 따르면 국회의원들 역시도 약속했던 내용들을 지키지 않았음을 언급하였다. 따라서 참여자들은 약속과는 다르게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들 속에서 국가와 국회의원에 모두에 실망하고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구 참여자들은 자녀들을 제대로 구하지 못한 정부의 무능력을 이미 경험한 상태에서 자녀 죽음의 원인에 대한 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에 더욱 분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부의 반복된 무능함은 유가족들을 더욱 화나게 만들었다. 참여자들은 수백 명의 학생이 사망한 재난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지는 사람도 없고 돈으로만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국가의 모습을 보고하였다. 또한 국회의원들 역시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기보다는 월급쟁이와 같은 모습을

표 6. 세월호 재난으로 자녀를 잃은 부모의 애도 과정에 대한 현상

개념	하위범주	범주
사건 후 2년이 지났지만 세월호 재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짐		
자녀를 잃고 죽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하게 됨	자녀의 죽음으로	
매일 밤 자녀의 사진 앞에서 눈물을 흘림	감당할 수 없는 슬픔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분노에
힘들어도 밖에서는 표현할 수 없어서 집이나 차에서 감정을 다 내어놓고 울기도 함		압도된 생활
언론에서 사건 사고에 대한 소식을 들어도 내가 겪고 있는 이 일이 다른 사건 사고로 인한 아픔과는 비교할 수 없이 가장 큰 아픔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흥이 없고 감정이 매마른 느낌이 듦		
자녀 죽음 이후, 자녀 죽음의 원인을 밝히고자 하는 활동에 참여하느라 떠난 자녀를 애도할 시간조차 없음	죽음의 원인 부재로 슬퍼할 수도 없는 유가족들	
자녀 죽음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자녀잃은 슬픔이 그대로 쌓여있음		
아이가 사고로 죽음을 당한 것에 대한 분노가 원동력이 되어 2년을 보낸 2년이 지났지만 죽음 원인을 알 수 없어 잠을 제대로 이룰 수 없음		

보이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이러한 국가적 책임의 부재는 참여자들로 하여금 국가에 대한 실망, 분노와 더불어 더 이상의 기대를 갖는 것을 포기하게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에 믿음이 없죠. 보여주기 식. 지원도 언제까지 해준다 해놓고 그 전에 다 끊었고 추모공원도 정해지지 않았어요. 2년이 지났지만 공사를 하지도 않고 정부에서 원하는 자리 준다했는데 지금은 아니죠. 하나를 보면 알죠. 우리가 믿게끔 해줘야(중략) 책임자 처벌이라고 해도 선장하고 두 명밖에 안했잖아요. 해수부 장관도 국회의원 출마하고 하나도 처벌이 안됐어요.” (연구참여자 3)

현상

현상은 여기에서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으로 중심생각이나 사건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세월호 유가족인 참여자들은 자녀의 죽음으로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분노에 압도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분노에 압도된 생활

자녀의 죽음 이후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연구 참여자들은 여전히 감당할 수 없는 슬픔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매일 밤 자녀의 사진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세월호 재난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는 생활을 반복하고 있었다. 또한 자녀를 잃은 슬픔으로 인해 다른 사건 사고에 대한 소식을 들어도 별다른 감흥이 없는 감정이 메마른 삶을 살고 있었다.

참여자들에게 자녀의 죽음은 감당할 수 없는 슬픔으로 여겨진다.

한편, 연구 참여자들은 다양한 이유로 슬픔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다. 이러한 이유에는 자녀의 죽음 직후부터 자녀 죽음의 원인을 밝히고자 하는 활동에 참여하여 애도할 시간조차 없었음, 자녀 죽음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슬픔이 그대로 쌓여 있음, 예상치 못한 사고로 자녀를 잃은 것에 대한 분노 등이 포함되었다. 즉, 생각지 못한 자녀의 죽음에 대한 원인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관련 활동에 바쁘게 참여하고 있는 연구 참여자들의 심리적, 환경적 요소들은 애도를 지연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죽을 때까지 쉽게 벗어나지 못할 것 같아. 뭐 어디가 아파서 그렇게 됐다 그러면 저희들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 부분이 생길 거예요. 아파서 그런 거니까 마음의 준비라도 할 텐데 이진 청천벽력처럼 아무런 준비 없이 우리한테 와버렸으니까 죽어야지 잊을 수 있겠죠.” (연구참여자 6)

중재적 조건

중재적 조건은 중심현상과 관련하여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즉, 중심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지지대가 되어주는 유가족과 공방, 힘이 되는 가족, 사회적 애도로 나타났다.

지지대가 되어주는 유가족과 공방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분노에 압도된 생활을 하고 있는 연구 참여자들은 유가족간의 지

표 7. 세월호 재난으로 자녀를 잃은 부모의 애도 과정에 대한 중재적 조건

개념	하위범주	범주
누구(망자)의 엄마, 아빠로 살아갈 수 있고, 유가족 엄마들이 함께 교류하며 울고 웃을 수 있는 위안의 공간인 공방		
공방은 우울증과 슬픔을 이겨내며 치유를 돕는 공간		
공방에서는 유가족끼리만 있을 수 있어 죽은 내 아이에 대해 마음껏 이야기 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으면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음	유가족 간의 지지와 조력	지지대가 되어주는
유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함		유가족과 공방
공방이나 분향소에 모여서 서로 대화를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신체활동을 하거나 함께 술을 마시기도 함		
피해지역 주민들과 함께 나누는 공방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힘을 낼 수 있음	잠시라도 슬픔을 잊을 수 있게 하는 공방의 활동	
뜨개질, 만들기와 같이 집중력과 기억력을 도와주는 엄마들을 위한 공방 프로그램		
공방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유가족들과 함께 플라마켓을 열어 기부하는 활동을 하면서 힘든 마음을 환기시키고 힘을 얻음		
자녀잃은 고통과 슬픔 그리고 자녀 죽음의 원인을 밝히고자 하는 활동으로 인해 자신에게 신경쓰지 못하는 부모를 보고 나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말라고 말하는 자녀가 어른스러움	생존자녀의 지지	힘이 되는 가족
나름대로 잘 이겨낼 테니 어머니도 힘내라는 자녀의 대견스러운 편지		
음식을 먹지 않는 유가족을 위해 끼니때 마다 찾아오는 처형이 고마움	친지가족들의 도움	
자녀 죽음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활동(피켓팅, 집회참여 등)에 유가족 당사자보다 더 열심히 참여해 주는 친가, 외가 식구들이 고맙고 힘이 됨		
팽주사태를 경험한 유족들이 함께 울어주는 모습을 보고 공감을 받음	과거 재난피해자 유가족들의 위로와 격려	
참사 초기 진도 팽목항에 방문한 자원봉사자들은 대부분 과거에 비슷한 사고를 겪었던 사람임을 알게 됨		
비를 맞으면서도 끝까지 남아 추모활동을 함께 해주는 사람들		
찾아와서 죽은 아이들을 위해 함께 예배드려주는 사람들	추모에 동참하는 국민들	사회적 애도
페이스북을 통해 416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고 분향소에서 이삼일씩 자고 가는 이름 모를 국민들로 인해 큰 힘을 받음		
아이들의 교실을 보고 함께 울면서 교실존치에 동의하고 응원하는 사람들		
처음에는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보았지만 아무런 보수도 받지 않고 열심히 활동하고 도와주려는 변호사, 시민 활동가, 시민단체에 대한 존경과 고마움을 느낌		
내 일처럼 발 벗고 나서서 활동하는 사람들에 대한 존경심이 생김	유가족과 함께 활동해주는 국민들	
자비로 두 세 시간 걸려 찾아와 연습과 공연을 해주는 합창단원들을 보며 이 세상에는 좋은 사람이 많음을 느낌		
적절한 보상과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도 자신의 아이들처럼 몸을 던졌던 잠수사분들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함을 느낌		

지와 조력이 도움이 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유가족들은 공방에 모여 죽은 자녀의 이름을 불러주거나 밖에서 속 시원히 말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는데 이러한 점들은 유가족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때때로 유가족들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거나 대화를 나누면서 술을 함께 마시는 등 서로 교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데 이를 종합해보면, 동일한 아픔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유가족간의 지지와 조력이 슬픔을 조금 이나마 약화시키고 유가족에게 위안이 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연구 참여자들은 유가족들 간의 지지와 조력 외에 공방 내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 역시 잠시나마 슬픔을 잊도록 해주었다고 보고하였다. 공방의 프로그램으로는 뜨개질, 만들기와 같이 엄마들의 집중력과 기억력 회복을 돕는 내용들이 포함되었으며,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만들어진 물품을 지역 주민들과 함께 나누는 활동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공방의 프로그램과 활동들은 유가족(엄마)의 슬픔을 잊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 일로 인해서 친해진 거죠. 같이 서명다니고 당직하고 (중략) 서로서로 챙겨준다고 할까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으니까. 눈만 뜨면 만나요 우리는. 형제보다 지금은..” (연구참여자 12)

힘이 되는 가족

생존 자녀가 보내주는 지지는 연구참여자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었다. 생존 자녀들은 연구참여자들이 자녀를 잃은 슬픔과 고통 및 자녀 죽음의 원인을 밝히고자 하는 활동으로 자

신들에게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이해하며 연구참여자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들을 걱정하지 말고 힘내시라는 생존자녀의 모습들에 연구참여자들은 대견스러워 하고 있었다.

원가족 뿐만 아니라 친지가족들의 도움도 참여자들에게 힘이 되고 있었다. 친척들은 끼니를 거르고 있는 연구참여자들을 위해 음식을 마련해주거나, 자녀 죽음의 원인을 밝히려 하는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모습들로 참여자들을 돕고 있었다. 이러한 친지가족들의 도움은 세월호 재난 이후 줄곧 지속되어 왔는데 연구참여자들은 이러한 친척의 지지와 조력에 감사하고 있었다.

“지금부터 서로 극복을 해야 되는데 00가 그러는데 지는 걱정하지 말라더라구요. 엄마아빠 힘든데 나까지 힘들게 할 수 없다. 내가 힘든 건 친구들하고 같이 할게요.” (연구참여자 5)

사회적 애도

연구참여자들은 과거 사고/재난 피해를 입은 유가족들의 위로와 격려에 큰 공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참여자들은 재난 초기에 팽목항으로 방문한 자원봉사들 대부분이 과거에 비슷한 사건을 겪었던 피해자임을 알게 되었고, 광주사태를 경험한 유족이 연구참여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모습을 목격하였다. 이를 종합해보면, 유가족에겐 동병상련의 경험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 유가족의 위로와 격려가 큰 힘이 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은 자신들과 일면식도 없는 국민들이 함께 추모에 동참하는 모습에 감동과 위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가 오

는 날 연구참여자들은 비를 피하기 위해 비옷과 우산을 쓰고 있었지만, 양복을 입은 채로 추모행렬에 동참해주는 국민들의 모습에 미안함과 감동을 느꼈다. 또한 페이스북을 통해 세월호 재난에 관심을 가지고 응원해주며 함께 예배드려주는 국민들, 아이들의 교실존치에 동의하고 응원하는 국민들의 모습들도 보고되었는데, 이처럼 죽은 자녀를 위해 함께 추모하고, 예배드려주며 자신들을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국민들의 모습은 연구참여자들에게 큰 힘이 되었다.

한편, 연구참여자에게 따르면, 국민들은 죽은 자녀를 향한 추모행사에만 동참한 것은 아니었다. 각 계 각층의 다양한 국민들은 연구참여자들을 위해 마치 내 일인 것처럼 열심히 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참여자들은 보수를 받지 않고 열심히 활동하는 변호사, 시민 활동가, 시민 단체를 포함하여 재난 직후 자녀를 구하기 위해 뛰어든 잠수사분, 함께 연습하며 공연을 해주는 합창단원 등을 포함해 자신들을 위해 함께 활동하면서 돕는 국민들을 향한 고마움과 미안함을 표현하였다.

“2주기 때 늘랐어요. 비가 장대같이 오는 광화문거리를 다 메꿔주고 눈물이 났죠. 연예인만 보고 갈 줄 알았는데 안가고 함께 있어줘 고맙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는 것 같았죠. 우린 비옷에 우산 썼는데, 청년들은 양복에 고스란히 다 맞고 있는 게 미안하고 부끄럽고.” (연구참여자 12)

작용/상호작용 전략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연구참여자들이 현상

을 다루고 조절하며 수행하고 반응하는 데 쓰이는 전략 혹은 기술과 관련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녀 그림자 지키기, 자녀 죽음의 원인을 밝히고자 하는 활동, 회복을 위한 공동체 조성 움직임으로 나타났다.

자녀 그림자 지키기

연구참여자들은 자녀가 재학 중이었던 당시 교실을 보존하고자 하였다. 비록 교실존치와 관련하여 다른 지역 주민들과 학부모들이 반대하고 비난하는 상황이었지만, 연구참여자들은 여러 대안을 제시하며 아이들이 있었던 장소를 그대로 지키고자 노력하는 모습들이 보여졌다. 이는 연구참여자들에게 있어 교실의 의미가 아이의 혼이 담겨 있는 곳으로 죽은 자녀가 잊혀지는 것을 두려워함과 동시에 오랫동안 기억되길 바라는 마음이 반영된 결과였다.

연구참여자들 가운데는 자녀의 죽음이 2년이나 지났음에도 아직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은 자녀의 생일과 이름으로 문신을 하거나, 죽은 자녀의 방을 없애지 못하고 물건도 그대로 두고 있거나 매일 아침저녁으로 비어있는 자녀의 방에 찾아가 안부 인사를 하는 모습들도 보고하였다. 이러한 모습들을 종합해볼 때, 연구참여자들은 슬픔으로 가득 찬 생활에서 죽음으로 자녀를 떠나보내고 단절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죽은 자녀와 유대를 지속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구참여자들은 노란 리본과 세월호 배지를 통해 자녀의 죽음이 기억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따라서 주변 사람들이 노란 리본과 세월호 고리를 달고 다니는 모습에 힘을 얻고 또한 그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보고하

표 8. 세월호 재난으로 자녀를 잃은 부모의 애도 과정에 대한 작용/상호작용 전략

개념	하위범주	범주
교실존치를 위한 유가족들의 학교 방문 때문에 아이들이 공부를 못한다고 비난하는 목소리에 여러 대안을 제시하며 교실을 지키고자 함		
많은 돈을 들여 교실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재학생에게 피해도 주지 않고 아이들이 있었던 장소를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함	아이의 혼이 담긴 교실지킴기	
죽은 자녀가 잊혀지는 게 두렵고 자녀가 언제까지나 기억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교실을 존치하고자 함		
죽은 자녀와의 추억을 아름답게 간직하고 싶음		
자녀와 늘 함께하고 싶은 마음에 자녀의 생일과 이름을 문신으로 새김		자녀 그림자 지킴기
마음에서 떠나보낼 수 없기에 죽은 자녀의 방을 없애지 못하고 물건을 치우지 못함	죽은 자녀와 유대를 지속함	
아직 죽은 자녀의 사망 신고를 할 수가 없음		
이사를 가셔도 아들의 방을 꾸며두고 없애지 못함		
매일 아침 저녁으로 자녀의 방문을 열고 안부인사를 물음		
주변 사람들이 자녀의 죽음을 기억하기 위해 세월호 배지나 고리를 달고 다닐 때면 큰 힘을 얻음	노란리본으로 기억되는 자녀의 죽음	
노란 리본과 배지를 달고 다니며 무언의 격려를 보내주는 사람들이 고마움		
자녀 죽음의 원인을 밝히고자 하는 활동을 통해 왜 우리 아이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 알고 싶다는 마음뿐임		
416이 왜 발생했는지 하루 빨리 그 원인이 밝혀져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음	자녀 죽음의 원인을 밝히는 것이 무엇보다 간절하고 시급함	자녀 죽음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활동
416이전에는 가장으로서 돈을 벌어 아이들과 넓은 집에 이사 가는 것이 목표였으나, 이후에는 아이 죽음의 원인을 밝히는 것이 목표가 됨		
병원, 심리치료, 그 밖의 다른 지원들보다 자녀가 왜 죽었는지, 왜 구조되지 않았는지 밝히는 것이 유가족에게 가장 큰 치유가 됨		
국회 특별법제정 농성이나 자녀 죽음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집회에 참여하며 왕성한 활동 함	자녀 죽음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다른 가족들이 힘에 부쳐 해내지 못하는 일들을 누군가는 해야 하기 때문에 자신이 라도 자녀 죽음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활동에 참여하여 하나씩 이루어 내하고자 함		
집에만 있는 엄마들에 비해 자녀 죽음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활동 및 공방활동 등에 참여하는 엄마들이 더욱 건강하다고 생각 함	회복을 돕는 외부활동	
직업 활동을 하면 자녀 죽음의 고통을 잠시 잊을 수 있기에 조금씩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는 남편		회복을 위한 공동체 조성 움직임
자녀를 잃은 슬픔으로 퇴직한 이후 직장으로 복귀 할 수 없어 남은 가족을 돌보기 위해 자립적으로 노력하는 아버지	회복과 치유를 위한 유가족내의 사회경제적 움직임	
타인의 눈치를 보며 스트레스를 받는 기존의 직장과는 달리 서로를 위로하며 힘을 낼 수 있는 유가족만의 경제공동체가 필요함		
외부와 단절되어 고립된 삶을 살아가는 유가족들이 사회복귀를 하고자 서로 도우며 노력함.		

였다. 즉, 자녀의 교실 지키기, 일상에서 죽은 자녀와 유대를 지속하기, 노란 리본과 세월호 배지에 의미를 부여하기들은 모두 연구참여자들이 죽은 자녀와의 단절, 분리가 아니라 죽은 자녀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기억들을 지키고 있는 모습으로 여겨진다.

“우리 애들이 잊혀지는 게 두렵잖아요. 영원히 보존해주고 싶은 마음이죠. 부모들은요.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교실을 보존하면 사람들 생각에 항상 있기 때문에.” (연구참여자 12)

자녀 죽음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활동

연구참여자들은 자녀 죽음의 원인을 밝히는 것을 무엇보다 간절히 원하고 있었다. 자녀가 죽기 전까지는 넓은 집으로 이사하는 것이 목표였으나 이제는 죽음의 원인을 밝히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었다는 연구참여자의 보고는 이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짐작하게 만든다. 또한 왜 우리 아이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 이유를 알아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음, 병원, 심리치료, 다른 지원들보다 더 큰 치유가 된다는 연구참여자들의 보고는 자녀 죽음의 원인을 밝히는 것이 곧 유가족의 치유와도 연결된 것으로 여겨진다.

자녀 죽음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에 대한 간절함을 가진 연구참여자들은 직접 이를 위한 여러 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참여자들은 이러한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휴가를 내기도 하였고, 국회나 광화문 등등 관련된 집회가 열리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가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또한 다른 유가족들이 힘에 부쳐 참석하지 못한다면 자신이라도 더욱 열심히 참여해야 한다는 마음들

역시 자녀 죽음의 원인을 밝히는 활동에 참석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자녀 죽음의 원인을 알고자 하는 것에 대한 간절함은 참여자들을 더욱 적극적인 모습들로 이끌게 된 원동력이었다.

“그때부터 닥치는 대로 그냥 국회든 총회든 광화문이 되었던 막 다녔던 거죠.” (연구참여자 2)

회복을 위한 공동체 조성 움직임

연구참여자들의 보고에 따르면, 외부 활동을 하고 있는 유가족들이 집 안에서만 생활하는 유가족들에 비해 건강한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가족 가운데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것이었다. 이러한 모습들에는 집에만 있는 어머니들에 비해 자녀 죽음의 원인을 밝히고자 하는 활동 혹은 공방의 활동에 참여하는 어머니들이, 회사를 다니며 직업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아버지들이 모습이 포함되었다.

또한 유가족 중 아버지들은 자녀의 죽음으로 인해 시작된 슬픔과 고통, 그로 인한 실직과 경제적 위기 등의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고자 유가족들이 함께 하는 사회경제적 공동체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무엇보다 유가족이 서로의 마음을 잘 이해하기 때문에 서로 의지가 되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연구참여자들은 아버지들이 처해 있는 상황, 직장 내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실직 상태에 놓여 있어 생계가 곤란하거나, 가족의 생계를 위해 재취업을 원하고 있지만 갈 곳이 없고, 여전히 자녀 잃은 슬픔에 외부와는 단절된 채 집 안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버지들의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는 이

표 9. 세월호 재난으로 자녀를 잃은 부모의 애도 과정에 대한 결과

개념	하위범주	범주	
사고 이전의 행복하고 소소했던 평범한 일상으로는 돌아갈 수 없음	돌아갈 수 없는 과거	추억으로 견뎌가는 삶	
시간이 흐를수록 아이를 향한 그리움은 더욱 깊어져 감			
죽을 때까지 자녀의 갑작스러운 죽음에서 벗어날 수는 없음을 생각함			
자녀와 함께 했던 추억의 시간, 장면들을 떠올리며 곱씹음	자녀의 살아생전 추억을 소중히 간직함	자녀 죽음의 원인을 밝히는 것이 애도의 시작	
자녀와의 행복한 기억들을 이야기하며 웃을 수 있음			
죽음의 이유를 알게 된 이후에야 병원비 지원, 치료 등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음	자녀 죽음의 원인을 알아야 수용 가능한 치료와 지원		
병원치료비, 심리치료 등의 그 어떤 지원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416이 왜 일어났으며 내 아이가 왜 죽었는지를 아는 것			
돈, 명예, 유가족의 아픔은 전혀 중요하지 않으며 오직 진실만 밝혀주면 아무것도 필요 없음	자녀 죽음의 원인을 밝히는 것이 곧 치유		
자녀 죽음의 원인을 알아내는 것이야말로 그 어떤 것보다 큰 치유이며, 90%는 회복될 수 있다고 생각함			
자녀 죽음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슬픔이 그대로 쌓여있는 상황에서 첫 번째 치유는 왜 죽었는지 알게 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함			
생존자녀를 보면, 죽은 자녀가 그리움	생존자녀를 보면서 죽은 자녀에 대한 그리움이 더해감		세상엔 없지만 일상에서 동행하는 자녀
죽은 자녀와 대비되는 성격을 지닌 생존자녀를 보면서 죽은 자녀가 떠오름			
가족 결혼식, 가족행사 등 즐겁고 행복한 순간마다 떠오르는 죽은 자녀	일상의 순간마다 떠오르는 죽은 자녀의 존재		
승용차의 비어있는 자리를 보거나 자녀가 야간 자율학습을 끝내고 돌아오는 시간이 되면 죽은 자녀가 떠올라 더욱 슬퍼짐			
예전과 달리 조용한 집, 주변의 대학생, 자녀와의 추억이 있는 장소들을 바라보면서 사별한 자녀가 떠오름	죽음을 예방할 수 있었던 상황으로 인해 더욱 애통함		
안개가 낀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출항한 세월호가 안개 낀 날씨를 고려하여 출항하지 않았더라면 재난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면 더욱 애통함			
참사 당시 구조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이 있었으나 끝내 구조되지 못한 아이들을 떠올리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램			
안전불감증과 무사안일에 대한 인식개선과 관심유도를 통해 다시는 세월호 참사와 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자신의 임무라고 생각함	사회적 소명감으로 살아감	자녀 잃은 고통을 소명감으로 견디며 애도함	
해외의 피해자단체처럼 우리나라도 피해자들이 함께 연대하여 참사에 대한 원인을 밝힐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함			
사고의 책임자를 확실하게 처벌해야만 대형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함			
처음에는 교실 존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으나,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을 추모하기 위해 교실을 찾는 것을 보며 참사의 현장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참사가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한 방법이라는 것을 실감함			
자녀 죽음의 원인을 밝히는 것은 앞으로 다른 참사가 발생했을 때, 적절한 대처 방안 마련과 피해자 지원의 기반을 세우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유가족이 지금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함			

러한 사회경제적 공동체 조성이 필요함을 보고하였다.

“현재 416가족들이 어떤 생계 이런 부분들이 많이 힘들기 때문에, 아빠들이 사회적 협동을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11)

결과

결과는 중심현상에 영향을 미친 작용/상호 작용 전략에 따라 나타난 것이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는 추억으로 견뎌가는 삶, 자녀 죽음의 원인을 밝히는 것이 애도의 시작, 세상엔 없지만 일상에서 동행하는 자녀, 자녀 잃은 고통을 소명감으로 견디며 애도함이었다.

추억으로 견뎌가는 삶

연구참여자들은 원가족과 친척, 이름 모를 국민들로부터 위안과 격려를 받고 공방 내 활동 및 자녀 죽음의 원인을 알아내고자 하는 활동을 하면서 힘을 얻고 있었지만, 이전처럼 과거의 행복한 순간으로 돌아갈 수는 없음을 보고하였다. 연구참여자들에 따르면 시간이 흐를수록 자녀를 향한 그리움은 더욱 깊어져 가고 있었으며, 죽을 때까지 자녀의 갑작스러운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것이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자녀와의 행복했던 시간과 장면들을 곱씹고 있었다. 자녀와의 소중한 추억들을 이야기하는 시간들은 연구참여자들을 웃게 만들었다. 이처럼 연구참여자들은 모두 자녀와 함께 했던 장면들은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추억들이 참

여자들로 하여금 슬픔과 고통 속에서 삶을 견뎌나갈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여겨진다.

“저는 제 아들 얘기만 하면 웃음이 나와요. 이런 일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중략) 교회사람들 하고도 막 얘기하다가 제가 웃고 있어요. 그러면 너는 아들 얘기 많이 해야겠다. 너 혼자 있지 말고 사람들 만나서 아들 얘기 많이 해라.” (연구참여자 16)

자녀 죽음의 원인을 밝히는 것이 애도의 시작

연구참여자들은 유가족들을 위해 제공되는 치료와 지원에 거부를 하거나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이유는 당장 자신의 육체적 불편보다는 자녀의 죽음의 원인을 아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연구참여자들은 죽음의 이유를 알게 된 후에야 병원비를 지원받거나 치료 지원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대답하였다. 하지만 연구참여자들의 다음과 같은 언급들은 자녀의 죽음을 아는 것이 치료와 지원의 선결조건이기 보다는 유가족의 치유와 회복 그 자체의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었다.

“가장 우선적으로 거의 90%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건 왜 죽었는지 알고 그 상황을 납득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뭐 병원 치료비는 어떻게 지원하고 이걸 사실 별로 중요치 않아요.” (연구참여자 8)

세상엔 없지만 일상에서 동행하는 자녀

연구참여자들은 생존 자녀를 볼 때마다 죽은 자녀의 모습이 떠오른다고 보고하였다. 연

구참여자의 언급에 따르면, 닳은 외모만이 아니라 대비되는 성격을 지닌 생존자녀의 모습에서도 죽은 자녀의 모습을 떠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연구참여자들은 생존자녀의 모습에서 떠오르는 죽은 자녀를 그리워하면서도 이로 인해 또한 힘들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참여자에게 따르면 일상생활 곳곳에서 자녀의 존재가 떠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모습들에는 친척 결혼식과 같은 가족 행사에 참여하거나 승용차의 비어있는 자리, 예전과 달리 조용한 집, 주변의 학생들을 목격하게 될 때 등이 포함되었다. 이처럼 죽은 자녀의 존재는 참여자들의 삶에서 언제나 동행하고 있었다.

“00(생존자녀)보니까 △△(죽은 자녀)생각까지 같이 나니 갈수록 더 힘들어져요.” (연구참여자 5)

자녀 잃은 고통을 소명감으로 견디며 애도함

연구참여자들은 자녀의 죽음의 원인을 알기 위한 간절함을 가지고 이를 위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었다. 하지만 연구참여자들의 보고에 따르면 자녀의 죽음의 원인을 아는 것 이외에도, 다시는 이러한 재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람들에게 알리고 해외 사례와 같은 국가 시스템을 만들어야하며, 앞으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적절한 대처방안을 마련하고 피해자 지원의 기반을 세우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유가족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통해 이러한 슬프고도 고통스러운 경험을 겪는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는 것에 의의를 두고 활동에 참여하고 있었다. 따라서 유가족들의 삶의 일부에는 이와 같은 사회적

소명감이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저희들이 계속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게 세월호 유가족들만의 일이나 대한민국의 일이고 우리의 일일 수 있는 거고. 한국 사회가 안전한 사회로 가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시작점이라고 보고 있구요 저희가 그 길에서 중심적 역할을 할 생각이 없지만, 처음에 누군가는 이걸 해야 돼요. 그것도 피해자 중에. 제도적 법적인 시스템 사회의 구조를 만드는 시작을 누군가 해야 되니.” (연구참여자 8)

세월호 재난 2년 시점에서 자녀를 잃은 부모의 애도과정에 관한 패러다임 모형

본 연구에서는 개념, 하위범주, 범주로 분해한 자료를 패러다임 모형에 의거하여 재조합하는 과정을 거쳤다. 패러다임 모형은 인과적 조건, 현상, 맥락적 조건, 중재적 조건, 작용/상호작용전략, 결과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다(Strauss & Corbin, 1990). 패러다임 모형의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인과적 조건

인과적 조건(causal condition)은 어떤 현상이 발생하거나 발전하도록 이끄는 사건이나 원인이 되는 현상들로 구성된 것이다(Strauss & Corbin, 1990). 본 연구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분노에 압도된 생활이라는 현상에 원인이 되는 인과적 조건들로 「갑자기 들이닥친 재앙」, 「믿을 수 없는 자녀의 죽음」으로 상징했다. 인과적 조건의 속성과 차원은 표 10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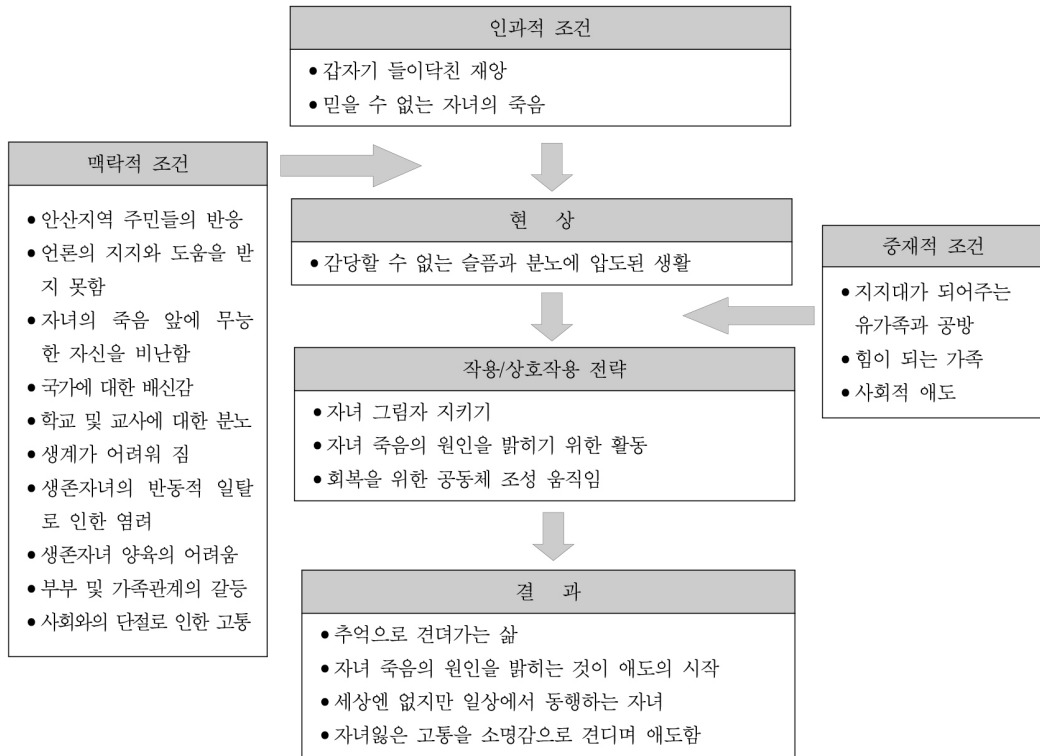


그림 1. 세월호 재난으로 자녀를 잃은 부모의 애도과정에 대한 패러다임 모형

표 10. 인과적 조건의 속성과 차원

범주	속성	차원
갑자기 들이닥친 재앙	강도	강함-약함
믿을 수 없는 자녀의 죽음	강도	강함-약함

현상

현상(phenomenon)이란 일련의 작용/상호작용 전략에 의해 다루어지고 조절되는 중심생각이나 사건 현상으로 연구참여자들에게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가를 나타낸다(Strauss & Corbin, 1990). 본 연구의 현상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분노에 압도된 생활」로 상정했다. 현상의 속성과 차원은 표 11과 같다.

표 11. 현상의 속성과 차원

범주	속성	차원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분노에 압도된 생활	강도	강함-약함

맥락적 조건

맥락적 조건(contextual condition)이란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나 사고를 의미한다(Strauss & Corbin, 1990). 본 연구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분노에 압도된 생활」을 현상으로 상정하였기 때문에 「안산지역 주민들의 반응」, 「언론의 지지와 도움을 받지 못함」, 「자녀의 죽음 앞에 무능한 자신을 비난함」, 「국가에 대한 배신감」, 「학교 및 교사에 대한 분노」, 「부부 및 가족관계의 갈등」, 「생계가 어려워 짐」, 「생존자녀의 반동적 이탈로 인한 염려」, 「생존자녀 양육의 문제」, 「사회와의 단절로 인한 고통」이 연구참여자의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분노에 압도된 생활을 하는 데 간접적인 영향을 더했다고 판단되어 맥락적 조

건으로 상정했다. 맥락적 조건의 속성과 차원은 표 12와 같다.

중재적 조건

중재적 조건이란 구조적으로 주어진 상황에서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조절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Strauss & Corbin, 1990). 본 연구에서 중재적 조건은 「지지대가 되어주는 유가족과 공방」, 「힘이 되는 가족」, 「사회적 애도」로 나타났다. 중재적 조건의 속성과 차원은 표 13과 같다.

작용/상호작용 전략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중재적 조건에 영향을 받아 현상에 대처하거나 이를 조절하고 다

표 12. 맥락적 조건의 속성과 차원

범주	속성	차원
안산지역 주민들의 반응	강도	강함-약함
언론의 지지와 도움을 받지 못함	영역	전부-일부
자녀의 죽음 앞에 무능한 자신을 비난함	강도	강함-약함
국가에 대한 배신감	강도	강함-약함
학교 및 교사에 대한 분노	강도	강함-약함
부부 및 가족관계의 갈등	강도	강함-약함
생계가 어려워 짐	강도	강함-약함
생존자녀의 반동적 이탈로 인한 염려	강도	강함-약함
생존자녀 양육의 어려움	강도	강함-약함
사회와의 단절로 인한 고통	강도	강함-약함

표 13. 중재적 조건의 속성과 차원

범주	속성	차원
지지대가 되어주는 유가족과 공방	강도	강함-약함
힘이 되는 가족	강도	강함-약함
사회적 애도	강도	강함-약함

표 14. 작용/상호작용 전략의 속성과 차원

범주	속성	차원
자녀 그림자 지키기	강도	강함-약함
자녀 죽음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활동	적극성	적극적-소극적
회복을 위한 공동체 조성 움직임	강도	강함-약함

루는 의도적 행위이다(Strauss & Corbin, 1990). 본 연구에서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자녀 그림자 지키기」, 「자녀 죽음의 원인을 밝히고자 하는 활동」, 「회복을 위한 공동체 조성 움직임」으로 나타났다. 작용/상호작용 전략의 속성과 차원은 표 14와 같다.

에서 결과는 「추억으로 견뎌가는 삶」, 「자녀 죽음의 원인을 밝히는 것이 애도의 시작」, 「세상엔 없지만 일상에서 동행하는 자녀」, 「자녀잃은 고통을 소명감으로 견디며 애도함」으로 나타났다. 결과의 속성과 차원은 표 15와 같다.

결과

결과는 작용/상호작용 전략수행에 의해 나타나는 것이다(Strauss & Corbin, 1990). 본 연구

과정분석

과정분석이란 시간의 흐름과 공간의 이동

표 15. 결과의 속성과 차원

범주	속성	차원
자녀 죽음의 원인을 밝히는 것이 애도의 시작	적극성	적극적-소극적
추억으로 견뎌가는 삶	강도	강함-약함
세상엔 없지만 일상에서 동행하는 자녀	영역	전부-일부
자녀잃은 고통을 소명감으로 견디며 애도함	영역	전부-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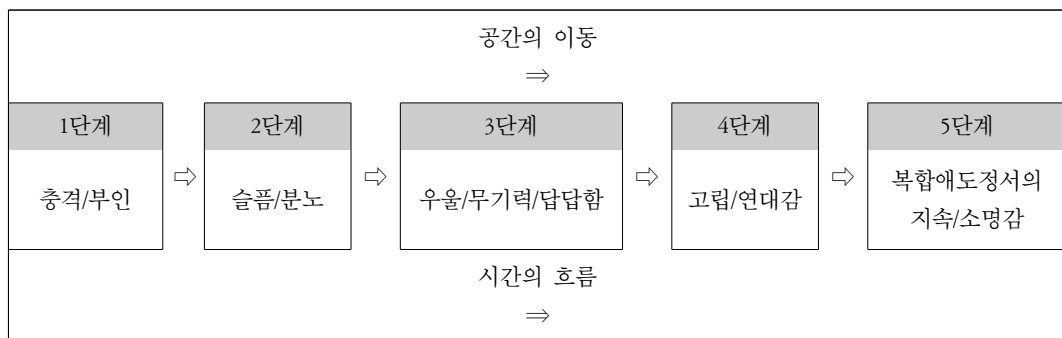


그림 2. 세월호 재난으로 자녀를 잃은 부모의 애도경험에 관한 과정분석

에 따라 현상에 대한 반응, 대처, 조절에 관계되는 작용/상호작용 전략의 연결을 의미한다 (Strauss & Corbin, 1990). 본 연구에서는 세월호 재난 2년 시점에서 유가족이 경험하는 애도 과정의 경로를 그림 2에서처럼 다섯 단계로 구분하였다.

충격/부인 단계

연구참여자들은 세월호 재난 이후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분노에 압도된 생활』을 보내고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갑자기 들이닥친 재앙으로 인한 충격 속에서 자녀의 죽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부인하며 극한 고통을 경험하였다.

슬픔/분노 단계

연구참여자들은 갑작스런 재난으로 자녀를 잃고 깊이 베어 짓무른 가슴을 안은 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경험하였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자녀의 죽음이 무엇 때문에 발생한 것인지 알지 못한 것에 대한 분노는 이러한 고통을 더욱 가중시켰다.

우울/무기력/답답함 단계

연구참여자들은 자녀를 잃은 데 대한 슬픔이 깊어지면서, 우울감에 시달렸다. 자녀는 떠났는데 자신은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한 미안함, 가족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이 무겁게 가슴을 짓눌렀다. 삶의 의미도 목표도 사라져갔다. 그러나, 이러한 고통 속에서도 연구참여자들은 자녀를 잃게 된 이유조차 확인할 수 없이 오히려 사회적으로 저지당하고 비난받아야 하는 분위기 속에서 점차 무기력함이 커져 갔다.

고립/연대감 단계

연구참여자들은 늘 자녀에 대한 생각에 압도되어있었기 때문에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울 수도 웃을 수도 없었다. 또한 가족과 사회로부터 자녀의 죽음에 대한 고통을 이해받을 수 없다는 생각에 점차 사회적 관계가 단절, 고립되어 갔다.

복합애도정서의 지속/소명감 단계

연구참여자들은 공방생활을 통해 유가족들과 함께 죽은 자녀와의 유대관계를 이어가고, 기억을 붙잡으며, 추억으로 견뎌가고자 다양한 대처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재난 이후 자녀 죽음의 원인을 밝히는 것과 죽은 자녀에 대한 국가, 사회, 학교의 사후처리가 유가족의 입장에서 고려되지 않는 것에 대한 분노와 실망이 더해져 가며 울분은 지속되었다.

세월호 재난으로 자녀를 잃은 부모들의 애도 단계 다층구조(그림 3)

논 의

본 연구는 세월호 재난 발생 이후 2년 시점에서 세월호 재난 피해 유가족들의 애도과정에 대해 밝혀보고, 유가족의 고통과 어려움을 살펴 이에 적절한 지원방안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서론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애도과정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고인 죽음을 둘러싼 맥락적 특성, 즉, 갑작스럽게 발생한 사건이거나 의도적 가해 상황, 고인의 죽음과 관련한 끔찍한 장면의 노출, 고인이 아동인 경우가 해당되는데, 이러한 경우 유가족들의 충격과 고통은 더욱 강렬한 것으로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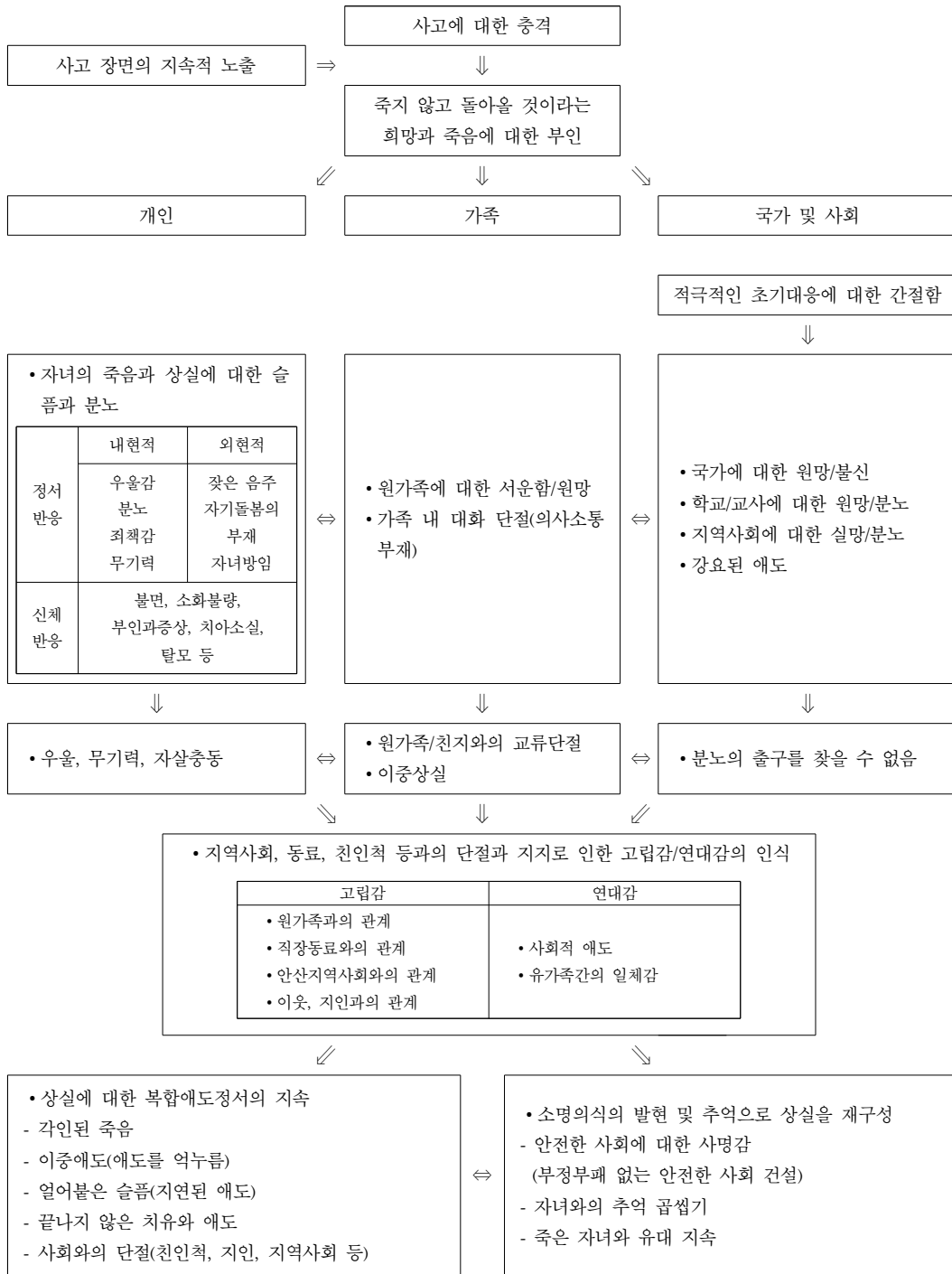


그림 3. 세월호 재난으로 자녀를 잃은 부모의 애도 단계 다층구조

되고 있다(Green, 1990) 연구자들은 이러한 측면에서 세월호 재난 피해자 유가족들의 비애 증상이 더욱 장기화 될 것을 우려하여, 연구 참여자들의 심리사회적 경험, 부부관계의 변화, 생존자녀의 양육, 아버지 삶의 변화, 자조 집단 경험 등 구체적인 삶의 모습에 대해 조명하며 재난 피해자 유가족들이 경험하는 삶을 연구한 바 있다. 연구자들은 연구를 진행하면서, 재난 이후 유가족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상담과 지원이 요구됨을 확인하였다(이동훈 등, 2017a; 이동훈 등, 2017b; 신지영, 이동훈, 서은경, 전지열, 2018; 최준섭, 이동훈, 2018; 김유진, 이동훈, 전지열, 2018). 그러나, 국내에서는 유가족 개인의 애도과정을 깊이 있게 탐색한 경험 연구가 거의 없으며(황정윤, 김미옥, & 천성문, 2014), 전문적인 애도 상담 또한 특성화 되어 있지 못하다는 측면에서(윤득형, 2018) 연구자들은 세월호 재난 유가족의 애도 경험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정리하고, 변화 양상을 심층적으로 탐색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본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연구방법론으로는 근거이론 방법을 적용하였는데, 근거이론은 사건이나 행위의 결과보다는 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Strauss & Corbin, 1990) 세월호 유가족들이 경험한 애도 과정을 도출하는 데 적절한 방법일 것으로 판단하였다. 자료분석은 개방코딩, 축코딩, 선택코딩 순으로 이루어졌으며, 개방코딩은 원자료를 바탕으로 『갑자기 들이닥친 재앙』, 『믿을 수 없는 자녀의 죽음』, 『자녀의 죽음 앞에 무능한 자신을 비난함』 등 총 23개 범주로 정리하였고, 축코딩을 통해 패러다임 모형이 정리되었다. 다음으로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과정분석을 실시하였다. 과정분석 결과 세

월호 유가족의 애도 단계는 ‘충격/부인’, ‘슬픔/분노’, ‘우울/무기력/답답함’, ‘고립/연대감’, ‘복합애도정서의 지속/소명감’의 5단계로 나타났다. 세월호 재난으로 자녀를 잃은 부모의 애도과정 및 애도과정에 미친 요인, 애도단계의 특징들을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충격/부인 단계는 인과적 조건의 『갑자기 들이닥친 재앙』, 『믿을 수 없는 자녀의 죽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세월호 재난으로 자녀를 잃은 부모들이 애도 초기단계에서 큰 충격을 받고 자녀의 죽음을 수용하기 어려웠던 이유는 세월호 재난의 몇 가지 특성들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배가 가라앉는 진행과정이 전국에서 TV로 중계되어 그 모습을 유가족들이 황망히 목도해야 했다는 점(Khang, M., Lee, D. H., & Kim, Y., 2018), 희생자의 모습이 SNS에서 여과없이 공개되어 유가족을 비롯한 국민들도 외상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홍은희, 2014). 그러나,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은 재난발생 소식을 듣고 팽목항으로 가는 길에서도 자신의 자녀는 희생되지 않았으리라 기대하고(연구참여자 3), 침몰 후에도 선내에 에어포켓이 남아 있을지 모른다는 실낱같은 희망을 걸었다(지주형, 2014). 실제로, 연구참여자들은 세월호 재난이 다른 일반 사고와 달리 피해자의 죽음에 이르는 시간이 며칠간 지속되었던 대형 참사였고, 이러한 충격적인 상황에 장기간 노출될 수밖에 없었기에, 그 충격과 고통은 더욱 컸다고 보고하였다. 질병으로 인한 죽음처럼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없었고 즐거운 수학여행 길에 일어난 사고였기에 유가족들에게 자녀의 죽음은 날벼락과 같은 재앙이었다. 수영을 잘하는 자녀였기에(연구참여자 7), 유달리 씩씩하고 건강한 자녀였기에(연

구참여자 3) 유가족들은 자녀의 죽음을 믿을 수 없었다.

두 번째는 슬픔/분노 단계이다. 슬픔과 분노 단계의 결과는 현상에서 나타난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분노에 압도된 생활』 범주 및 맥락적 조건의 『국가에 대한 배신감』, 『언론의 지지와 도움을 받지 못함』, 『학교 및 교사에 대한 분노』, 『안산지역 주민들의 반응』 범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사람들은 상실을 경험하였을 때 일반적으로 슬픔, 분노, 죄책감과 같은 정서를 경험하고, 특히 사망한 대상이 유족의 자녀일 경우, 부모는 개인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힘든 상실을 경험하게 된다(Freeman, 2005). 자녀의 죽음에 대하여 Sanders(1989)는 견딜 수 없는 슬픔이자, 깊이 베여 짓무르고 끓아터진 상처라고 하였고, Klass(1988)는 사지의 절단이 자식의 죽음에 대한 비유로써 사용된다고 하였는데, 이는 자녀 죽음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잘 설명해 준다.

이처럼 자녀의 죽음은 개인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 중 하나인데, 세월호 재난의 특징 중 하나는 그 희생자 대부분이 고등학생 자녀였기 때문에 유가족들은 자녀 잃은 슬픔과 분노가 더욱 클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은 자녀 잃은 슬픔과 고통에 압도되어 떠나버린 자녀에게 살아 숨 쉬는 것조차 미안해했고, 슬픔과 죄책감, 자살충동을 경험하기도 했다. 또한, 세월호 재난은 재난 발생 및 구조과정에서 선장과 선원의 무책임한 도주, 피해자 가족들과 사회적 소통곤란(지주형, 2014), ‘재난 원인분석 및 재발 방지대책에 대한 보도’가 아닌 ‘정부와 사회의 반응과 대응’에 편향된 언론 보도(박경우, 2015) 등을 특징으로 하였기 때문에 자녀를 잃은 유가족들은 그 슬픔과 분노가

더욱 컸다. 이처럼, 세월호 재난으로 자녀를 잃은 유가족들은 다른 재난과 달리 희생자 대부분이 어린 고등학생이었다는 점, 그리고 자녀를 잃은 슬픔에 더하여 국가와 언론, 사회에 대한 분노가 매우 컸다는 점으로 인하여 더욱 고통 받고 슬퍼할 수밖에 없었다.

세 번째 단계는 우울, 무기력, 답답함 단계였다. 우울/무기력/답답함의 단계는 『자녀의 죽음 앞에 무능한 자신을 비난함』, 『안산지역 주민들의 반응』, 『언론의 지지와 도움을 받지 못함』, 『국가에 대한 배신감』, 『학교 및 교사에 대한 분노』의 결과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Meij 등(2008)은 죽음을 둘러싼 상황 즉, 고인의 죽음에 대한 원인 인지 여부가 사별 경험 이후 애도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세월호 유가족들의 애도과정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연구참여자들은 자녀가 이처럼 큰 대형 참사로 죽음을 겪고 나서 왜 자녀가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지 알 수 없는 것이 더욱 고통스럽다고 호소하였다. 왜 자녀를 떠나보내야 하는 지 납득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가족들의 분노와 고통은 감소되지 않고 있었다.

Worden(1991)은 애도의 4가지 과업에 대해 설명한 바 있는데, 적절한 애도를 위해서는 상실을 수용하는 것, 슬픔을 다루고 작업하는 것, 사별 대상이 부재한 환경에 적응해 나가는 것, 삶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세월호 유가족들은 재난 발생 이후 2년이 흐른 시점까지도 자녀의 상실을 수용하지 못하고 사별 슬픔을 다루지 못했다(이동훈 등, 2017a). 실제로,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들은 이러한 자녀의 죽음 앞에 죽음의 원인을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답답함과 더불어 자녀가 죽어가는 동안 아무것도 해 준 것이

없다는 회한을 간직한 채, 무기력하고 우울한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고 보고하였다.

네 번째 단계는 고립감/연대감으로 나타났다. 고립감/연대감의 단계는 연구결과에서 『부부 및 가족관계의 갈등』, 『생계가 어려워짐』, 『사회적 단절로 인한 고통』, 『자녀 죽음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활동』, 『지지대가 되어주는 유가족과 공방』, 『사회적 애도』, 『회복을 위한 공동체 조성 움직임』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재난피해 유가족에 대한 선행연구결과를 살펴보면 가족과 친구가 주는 사회적 지지는 유가족의 슬픔을 완화해주는 주요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Cvinar, 2005). 그러나 세월호 유가족들은 자녀를 잃은 슬픔 뿐 아니라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재난 발생 과정이 미디어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점, 지역 사회 주민들로부터 경제악화를 유발한다는 비난까지 받아야 했던 점, 한국사회와 정부의 구조적 문제까지 드러난 점 등으로 인해 유가족의 고통이 더욱 심화되면서 유가족들은 대인관계단절과 심리적 고립의 상황까지 놓이게 되었다(이동훈 등, 2017b).

이러한 상황 요인은 세월호 유가족의 애도 과정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 연구참여자들은 늘 자녀에 대한 생각이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울 수도 웃을 수도 없었다고 보고하였다. ‘밖에서 웃거나 식사를 좋은데서 하면 돈을 받았다고 손가락질을 받지는 않을까’, ‘자녀생각에 눈물이라도 흘리면 저사람 때문에 분위기가 이상해진다는 얘기를 듣지는 않을까’ 조심스럽지 않을 수 없었다고 구술하였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은 원가족과 친척에게조차 자녀 잃은 슬픔을 이해받을 수 없다고 느끼며 부부와 생존자녀 그리고 다른 유가족만이 서로를 이

해할 수 있는 형제이자 진정한 가족이라고 여기게 되었다고 하였다. 겪어보지 않은 이상 그 누구도 유가족의 마음은 가슴깊이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타인에 대한 경계의 끈을 놓을 수 없었다.

특히 연구참여자들은 지인들과의 관계에서 고립된 것 뿐 아니라 상담이나 심리치료를 받으러 가는 것조차 굉장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유가족이 단순히 사회적 지지와 조력 뿐 아니라 전문적인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을 때 자신의 애도를 더 잘 다룰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된 선행 연구들(Kreicbergs et al., 2007)에 비추어보았을 때, 애도과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세월호 유가족들과 묵묵히 함께해 주고 다시 한 번 일어날 힘을 주신 고마운 존재들도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아무런 보수 없이 자신들을 도와주고 지원해준 분들이 있었는가 하면 장대같은 빗줄기 속에서 유가족과 함께 자리를 지켜준 시민들도 있었기에 힘을 받을 수 있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은 공방활동을 바탕으로 유가족 공동체가 함께 교류하고 서로 위로하면서 힘을 얻을 수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안전한 지지집단이 사별 경험 이후 회복 촉진을 돕는다는 연구결과(Schut et al., 2001)와도 일치한다. 특히 유가족들은 공방 내에서 죽은 자녀의 이름을 편하게 서로 불러주며 죽은 자녀 어머니로서의 정체성을 이어가고 서로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울 수 있었다고 구술하였는데, 이러한 연구참여자의 보고는 자녀를 잃은 부모에 관한 연구(Rosenblatt, 2000)에서 자녀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재구성하는 것이 생존한 배우자나 남은 자녀들과

의 관계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해 준다는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Tedeschi와 Calhoun (1996, 2004)는 자신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주변사람들과 나눔으로써 자기공개 기회와 사회적 지지를 구하는 경험을 함께 하게 되고 이것은 반추의 과정과 상호작용을 일으켜 어느 순간 역경과 자신의 삶에 대한 자의적인 성찰을 가져온다고 설명하였는데(임선영, 2013에서 재인용) 실제로, 세월호 유가족들은 공방 안에서 서로 자녀에 대한 기억을 재구성하고 유가족 간에 공감과 지지를 경험하며 자녀를 애도하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고 구술하였다.

다섯 번째는 복합 애도정서의 지속/사회적 소명감 단계이다. 이는 『자녀 그림자 지키기』, 『생존자녀의 반동적 일탈로 인한 염려』, 『생존자녀 양육의 어려움』, 『추억으로 견뎌가는 삶』, 『자녀 죽음의 원인을 밝히는 것이 애도의 시작』, 『세상엔 없지만 일상에서 동행하는 자녀』, 『자녀없는 고통을 소명감으로 견디며 애도함』 범주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가족체계관점으로 볼 때, 자녀의 죽음은 한 개인이 아닌 가족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기 때문에(Lichtenthal, Currier, Neimeyer, & Keesee, 2010; Walsh & McGoldrick, 2004) 유가족들은 자녀 죽음으로 인한 슬픔 뿐 아니라 재난 이후 자녀의 빈자리로 인한 가족 전체의 변화와 갈등을 고통스럽게 겪어야만 했다. 가족 간 갈등의 문제 중 가장 큰 어려움은 생존자녀 양육 문제였다. 형제자매를 잃은 생존자녀들은 심리 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는데 장례식장에서 머리를 박거나 심하게 소리를 지르는 등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고, 분노와 짜증, 신경질적 성격을 보이기도

하였다.

또한, 연구참여자의 생존자녀들은 국가에 대한 분노를 표현하기도 하였는데, 규율과 법률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고,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 극도의 분노감정을 표출하는가 하면 대통령과 한국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도 서슴지 않았다고 구술하였다. 이러한 심리적 갈등과 어려움은 생존자녀들이 대인관계 갈등 및 학업에도 집중하기 어렵게 하였을 뿐 아니라 학교생활 전반에 적응의 어려움을 초래하였다. 세월호 재난 이후 생존자녀의 반응에 대한 부모인식을 연구한 Khang 등(2018)의 연구에 따르면 생존자녀들은 공권력, 뉴스 보도, 경찰 및 언론을 불신하고 어른에 대한 권위까지도 상실하게 되었다고 보고하였는데, 이처럼 세월호 재난으로 자녀를 잃은 부모들은 자녀없는 고통에 더하여 생존자녀의 고통과 가족 갈등까지 감내해야 할 수밖에 없었다.

부부관계 갈등도 심화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은 부부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가정이 거의 없다고 보고하였는데, 자녀를 잃은 이후 작은 갈등이 생겨도 이혼까지 생각하는 횟수가 잦아졌다고 보고하였다. 자녀의 죽음을 부부가 서로의 책임으로 돌리거나 원망하며 싸우기도 하고, 점차 신경질적으로 변하는 배우자가 감당하기 어려워졌다고 구술하기도 하였다. 한편 생계 어려움도 또 다른 스트레스 요인이 되었다. 자녀를 잃은 후 유가족들은 직장생활에 적응이 어려워졌을 뿐 아니라 부모들은 416 재난이 왜 일어났는지 밝히기 위한 일에 몰두하다 보니 경제활동을 정상적으로 참여할 수가 없었다. 이처럼 연구참여자들은 자녀를 잃은 후 다중의 고통을 겪어야 했고, 이로 인하여 잃은 자녀에 대한 적절한 애도를

하지 못하고 복합애도정서를 경험하고 있었다.

그러나, 연구참여자들은 죽은 자녀와의 유대관계를 이어가면서 애도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자녀가 떠나버린 안산 지역에 계속 거주하는 것이 자녀를 지속적으로 떠올리게 해서 고통스럽고 이사를 가버리고 싶은 마음도 컸다. 하지만, 안산은 죽은 자녀가 살아생전에 공부하고 운동하고 놀았던 추억이 담긴 지역이기 때문에, 자신이 떠나버리면 자녀 혼자 이곳에 외톨이가 되어버릴 것 같은 마음에 거주지를 옮기지 못했다고 구술하기도 했다. 또한, 자녀의 물건이나 일기장 등을 버리지 않고 보관하면서 자녀와의 보이지 않는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유가족도 있었다. 자녀의 물건 뿐 아니라 자녀와의 많은 추억을 떠올리고 되새기면서 죽은 자녀와의 새로운 유대관계를 이어가고자 노력하기도 하였다. 이는 유가족이 고인의 존재를 지속적으로 느끼고 고인과 연결감을 느낄 수 있는 물리적 대상을 소유하고, 고인을 기억함으로써 평온함을 느끼게 되어 회복을 촉진한다는 연구결과(Currier et al., 2015)와 일맥상통한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은 다시는 사회에 이러한 대형재난으로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명감을 갖고 자녀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대처하고자 노력하였는데 이는 서론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사별 이후 고통 속에서도 성장의 지표를 찾는 이득 찾기, 상실 경험에 대한 의미를 재구성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자신의 정체성 변화를 바탕으로 외상 후 성장 가능성을 촉진한다고 한다는(Bogensperger & Lueger-Schuster, 2014; Gillies & Neimyer, 2006; Steffen & Coyle, 2010) 선행연구들과 그 맥을 같이 한다.

지금까지 세월호 애도단계별 특징들을 살펴 보았는데, 이러한 세월호 애도단계는 기존의 다른 애도과정을 다른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몇 가지 공통점과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공통점을 살펴보면, 세월호 애도 단계는 기존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가족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충격과 부정을 경험하며 상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고 의식적 자각이 진행되면서 다양한 감정표출, 특히 분노와 죄책감, 우울 등을 경험한다는 것이다(Doyle, 1980; Kubler-Ross, 1969; Westberg, 1962) 특히, 세월호 재난과 같은 사회적 재난을 다룬 보스턴나이트 클럽 화재 유가족의 애도과정 연구에서는 애도과정의 정서적 반응 뿐 아니라 신체적 반응을 포함하였다는 측면에서 세월호 유가족의 애도과정의 특징과 유사한 측면이 발견되었다(Lindemann, 1944).

반면, 기존 애도 단계에 대한 선행연구와 세월호 애도단계에 대한 차이점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애도단계에 대한 선행연구는 특정 재난으로 인한 애도단계(Lindemann, 1944)나 애도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보고하는 일반적인 애도단계(Doyle, 1980; Kubler-Ross, 1969; Westberg, 1962), 개인의 신체적, 인지적, 행동적, 영적 영역의 측면을 설명하는 애도단계(Schneider, 1984; Marrone, 1997) 등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이러한 애도단계 연구들은 주로 일차원적인 방향으로 제시되고 있어 세월호 재난 연구와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연구결과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세월호 재난의 애도단계는 개인, 사회, 국가 차원의 다차원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세월호 재난 피해자들은 자녀의 죽음으로 인해 개인차원에서 정서적, 신체적, 영적 변화를 경험했을 뿐더러, 가족차원에서는 가족 내의 의사소통 부재 및 친인척과의 교류

단절 등으로 인해 애도 과정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국가차원에서는 죽음 원인의 부재, 재난 당시 상황에 대한 언론의 지속적 노출, 지역사회 비탄 등이 애도를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또한, 세월호 애도과정의 특징은 세월호 재난 발생 이후 지속적으로 강렬한 분노와 자살 충동 등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더 나아가 이러한 심리적 갈등은 만성적인 형태로 나타나 또 다른 관계 갈등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즉, 세월호 유가족들은 복합애도정서의 지속으로 성격변화까지 이어져 생활 전반에서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특징은 애도단계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최종적으로 애도단계의 수용 또는 해결로 수렴하는 경우와의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한편, 세월호 애도단계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애도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하나의 단계 내에서 양립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유가족들은 재난 이후 사회적 고립과 동시에 공동체의 연대감을 경험한다거나, 복합적 애도정서와 동시에 사회적 소명감으로 고통을 견뎌가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특징들은 세월호 재난 애도단계의 양립성을 잘 설명해 준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난 피해자가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상담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현재는 세월호 트라우마 센터인 “안산 온마음센터”가 설립 운영되고 있기는 하지만, 유가족들은 자식이나 가족을 잃고 신체적·심리적 질환에 대한 치료에 대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며 스스로 건강을 포기하는 경향이 있다(박기목, 2015). 또한, 본 연구의 연구결과와 같이

유가족 간의 관계 내에서는 연대감을 경험하지만 그 밖의 관계에서는 심각한 고립감을 경험하는 유가족이 상담실로 접근하는 것은 그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세월호 유가족들의 심리상담 지원을 위해 유가족 자조집단 내에서 상담기관을 연계하는 등 유가족의 전문상담 접근 자체에 대한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세월호 재난 유가족의 상담은 애도과정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기반으로 상담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자녀의 죽음이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를 수용하고 인정하는 일반적인 애도과정과는 달리, 개인적 차원, 가족적 차원, 국가적 차원에서 애도를 지연시키는 다양한 제반사항이 있음을 상담자가 숙지하여 상담과정에서 개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지역주민들의 냉대어린 분위기로 인한 사회적 위축, 내 가족의 슬픔이 사회로부터 수용되지 않는다는 생각들, 국가의 피해자 지원의 취소와 중단, 경제적 수입원의 단절로 인한 현실적 어려움, 국가 및 대인관계에 대한 불신으로 인한 신뢰관계 형성의 어려움 등(이동훈 등, 2017b) 유가족이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는 이차적 피해에 대한 숙지와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상담의 효과 또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세월호 재난 발생 시 적극적 초기대응을 위한 유관기관과 지역관계의 협력체계 및 상담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재난심리지원업무를 지정받은 기관은 비상시 기구였기 때문에 해당 업무만을 전문적으로 집중할 수 없는 시스템이었으며, 담당 전문인력 부재로 인해 자원봉사자에 의존한 나머지 유가족의 불만이 심화되기도 하였다(이나빈 등, 2015).

이나빈 등(2015)은 세월호 재난 심리지원 실무자들의 경험을 기반으로 하여 국내 재난심리지원체계의 한계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바 있는데, 세월호 재난 발생 초기단계에서 실무자들은 실제로 재난 심리 유관기관 및 지역 간의 협력관계 구축의 어려움, 심리지원의 전문성관련 갈등 등의 실질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효과적인 지원을 실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재난 대응체계가 비교적 잘 구축되어 있다고 평가받고 있는 미국의 경우, 재난 대응 단계에서 수직적 지휘보다는 수평적 협업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으며 중앙의 권한을 강화하기보다 지방정부 중심으로 현장을 지휘하고 지원하는 조직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는 중앙집권적으로 정책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복잡하고 현장에서는 유관기관 간에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우리나라에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신용식, 2014). 따라서,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현장을 중심으로 새로운 조직을 구성할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의 재난 대응능력 및 전문성 강화, 부서 간 협조를 강화하는 것이 더욱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재난 피해자 유가족들의 애도를 돕기 위해서는 재난 피해자 연대를 바탕으로 한 지지체계 구축 및 피해자 중심주의적 지원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녀를 잃은 부모들의 애도과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요인은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보다 함께 아픔을 공유해온 다른 유가족의 존재였다. 실제로 세월호 유가족은 2016년 프랑스에서 참사 피해자 연대모임인 테러참사피해단체연합(FENVAC·펜박)을 방문하여 참사피해경험의 공유와 지지가 향후 재난의 재발을 막고 유가족들의 고통이 서로 다르지 않기에 큰 힘

이 된다고 설명하였다(한겨레, 2018. 4. 16). 따라서, 재난 피해자들의 애도를 돕고 개입하는데 있어, 이전 재난 피해 유가족들을 통한 접근과 심리상담 및 지원활동들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나타난 바, 이전 재난 피해의 유가족의 참여를 독려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본연구의 학술적 의의로는 국내에서 대형재난으로 인한 피해 유가족들의 애도에 대한 애도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연구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이러한 애도반응 및 과정을 탐색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실제적으로, 세월호 유가족들의 애도과정을 심도있게 이해하여 심리상담 개입시 보다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검토해 보면 본 연구 결과는 안산시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연계된 17명의 사례만을 분석하였고 질적 분석 자체가 일반화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유가족 전체로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세월호 유가족들의 애도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에 대한 파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연구의 인터뷰는 세월호 재난 이후 2년 시점에 실시된 점을 감안하였을 때, 현재시점에서 세월호 유가족의 애도과정이 반영이 되지 않았을 수 있다. 유가족의 개인 차원에서 살펴보았을 때, 세월호 유가족을 위한 의료지원이 2년 내로 한정되어 있었다는 점, 유가족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의 악화가 지속적으로 누적되어 왔다는 점, 상당수의 유가족이 자녀 죽음의 원인을 알아내기 위한 등 활동으로 실직 상태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어 왔다는 점 등은 유가족의 애도 과정에

또 다른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또한 사회 및 국가 차원에서는 정권의 교체, 2기 세월호 특조위의 설립과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기무사 사찰 정황 등이 확인되었다는 측면에서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유가족의 심리정서적 변화를 추가적으로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에도 세월호 유가족들의 애도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연구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 김유진, 이동훈, 전지열 (2018). 세월호 재난으로 자녀를 잃은 부모들의 자조집단 경험에 대한 연구. *재활심리연구*, 25(4), 667-699
- 김은미, 김병오 (2018). 세월호 유가족의 자녀 상실 경험연구.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29(2), 89-129.
- 김진숙, 이혁구, 이근무 (2012). 중산층에서 탈락한 개인들의 경험과정에 대한 근거이론 접근-재진입 시도와 실패를 경험한 자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3(4), 195-230.
- 메디컬투데이 (2017. 10. 8).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 정신질환 치료 지원은 4.3%뿐.
- 박경우 (2015). 세월호 참사 보도에 대한 독자 프레임과 매체 프레임. *스피치와 커뮤니케이션*, 27, 297-330.
- 박기목 (2015). 세월호 참사 희생자 부모들의 심리적 외상에 관한 기술적 접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5(9), 134-145.
- 신명진 (2016). 세월호 유가족의 사별경험,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용식 (2014). 세월호 여객선 재난 이후 재난관리시스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위기관리논집*, 10(8), 29-50.
- 신지영, 이동훈, 서은경, 전지열 (2018). 청소년 자녀와 사별한 부모의 부부관계 경험에 관한 질적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7(2), 221-255.
- 연합뉴스 (2017. 11. 28). “스트레스로 이 빠지고 술에 의지...세월호 유족 여전히 고통”
- 윤득형 (2018). 애도상담의 기본 원리와 목회적 접근. *신학과 실천*, 58, 417-446.
- 이나빈, 심기선, 한상우, 이강욱, 심민영, 채정호, 안현의 (2015). 세월호 참사 후 재난심리지원 실무자들의 경험을 통해 본 국내 재난심리지원체계의 한계 및 개선방안.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43(4), 116-144.
- 이나빈, 심기선, 안현의 (2017). 세월호 참사에 대한 일반인들의 침습기억과 사건중심성 간 관계에서 사회적 공유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31(4), 27-50.
- 이동훈, 이춘화, 신지영, 강민수, 서은경 (2017a). 세월호 재난으로 자녀를 잃은 부모들의 사회적 지지, 갈등, 고립경험에 관한 연구. *상담학연구*, 18(5), 331-355.
- 이동훈, 이춘화, 신지영, 강민수, 전지열, 이화정, 김미정 (2017b). 세월호 재난으로 자녀를 잃은 부모의 내적 경험에 관한 질적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9(2), 255-291.
- 이순열 (2015). 한국사회의 위험에 대한 심리학적 접근과 제언.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4(3), 709-739.
- 이홍표, 최윤경, 이재호, 이홍석 (2016). 세월호 뉴스 노출을 통한 간접 외상의 심리적 영

- 향.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2(3), 411-430.
- 임선영 (2013). 외상적 관계상실로부터 성장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5(4), 745-772.
- 정형수, 이지영, 김소연, 양은주 (2014). 한국 성인의 사별에 의한 복합비에경험 개념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3(1), 81-107.
- 지주형 (2014). 세월호 참사의 정치사회학. 경제와사회, 104, 14-55.
- 최준섭, 이동훈 (2018). 자녀를 잃은 아버지들의 삶에 관한 탐색적 연구. 교육학연구, 56(3), 1-29.
- 한겨레 (2018. 4. 16). “세월호 4주기, 트라우마 치유 출발은 ‘진실규명’
- 홍은희 (2014). 한국 재난보도의 과제. 관훈저널, 131, 26-36.
- 황정윤, 김미옥, 천성문 (2014). 성인용 애도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재활심리연구, 21(3), 537-560.
- Arnold, J., & Gemma, P. B. (2008). The continuing process of parental grief. *Death studies*, 32(7), 658-673.
- Bogensperger, J., & Lueger-Schuster, B. (2014). Losing a child: finding meaning in bereavement. *European journal of psychotraumatology*, 5(1), 22910.
- Bonanno, G. A. (2004). Loss, trauma, and human resilience: have we underestimated the human capacity to thrive after extremely aversive events?. *American psychologist*, 59(1), 20-28.
- Bonanno, G. A., & Kaltman, S. (2001). The varieties of grief experience. *Clinical psychology review*, 21(5), 705-734.
- Bonanno, G. A., Neria, Y., Mancini, A., Coifman, K. G., Litz, B., & Insel, B. (2007). Is there more to complicated grief than depression an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 test of incremental validity.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16(2), 342.
- Bowlby, J. (1980). *Attachment and loss: loss, sadness and depression* (Vol. 3).
- Braun, M. J., & Berg, D. H. (1994). Meaning reconstruction in the experience of parental bereavement. *Death Studies*, 18(2), 105-129.
- Burton, C. L., Yan, O. H., Pat Horenczyk, R., Chan, I. S., Ho, S., & Bonanno, G. A. (2012). Coping flexibility and complicated grief: a comparison of American and Chinese samples. *Depression and Anxiety*, 29(1), 16-22.
- Currier, J. M., Irish, J. E., Neimeyer, R. A., & Foster, J. D. (2015). Attachment, continuing bonds, and complicated grief following violent loss: testing a moderated model. *Death studies*, 39(4), 201-210.
- Cvinar, J. G. (2005). Do suicide survivors suffer social stigma: a review of the literature. *Perspectives in psychiatric care*, 41(1), 14-21.
- Davis, C. G., Wortman, C. B., Lehman, D. R., & Silver, R. C. (2000). Searching for meaning in loss: are clinical assumptions correct? *Death Studies*, 24(6), 497-540.
- Decinque, N., Monterosso, L., Dadd, G., Sidhu, R., Macpherson, R., & Aoun, S. (2006). Bereavement support for families following the death of a child from cancer: experience of bereaved parents. *Journal of Psychosocial-Oncology*, 24(2), 65-83.
- Doka, K. J. (2011). *Helping bereaved children: A handbook for practitioners*. New York: Guilford

- Press.
- Doyle, P. (1980). *Grief counseling and sudden death: A manual and guide*. Illinois: Charles C Thomas Pub Limited.
- Freeman, S. J. (2005). *Grief & loss: understanding the journey*. CA: Thompson Brooks/Cole.
- Gillies, J., & Neimeyer, R. A. (2006). Loss, grief, and the search for significance: Toward a model of meaning reconstruction in bereavement. *Journal of Constructivist Psychology, 19*(1), 31-65.
- Ginzburg, K., Geron, Y., & Solomon, Z. (2002). Patterns of complicated grief among bereaved parents. *OMEGA-Journal of Death and Dying, 45*(2), 119-132.
- Green, B. L. (1990). Defining trauma: Terminology and generic stressor dimension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20*(20), 1632-1642.
- Hogan, N., & DeSantis, L. (1992). Adolescent sibling bereavement: an ongoing attachment. *Qualitative Health Research, 2*(2), 159-177.
- Horowitz, M. J., Siegel, B., Holen, A., Bonanno, G. A., Milbrath, C., & Stinson, C. H. (2003). Diagnostic criteria for complicated grief disorder. *Focus, 1*(3), 290-298.
- Kaltman, S., & Bonanno, G. A. (2003). Trauma and bereavement: Examining the impact of sudden and violent deaths.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17*(2), 131-147.
- Keesee, N. J., Currier, J. M., & Neimeyer, R. A. (2008). Predictors of grief following the death of one's child: The contribution of finding meaning.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64*(10), 1145-1163.
- Khang, M., Lee, D. H., & Kim, Y. (2018). Parental perceptions of surviving sibling grief responses to an adolescent's violent and sudden death by the sewol ferry disaster in south korea. *OMEGA-Journal of Death and Dying, 0030222818777340*.
- Klass, D. (1988). *The Springer series on death and suicide, Vol. 9. Parental grief: Solace and resolution*.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Co.
- Klass, D., & Marwit, S. J. (1989). Toward a model of parental grief. *Omega-Journal of Death and Dying, 19*(1), 31-50.
- Klass, D., Silverman, P. R., & Nickman, S. L. (Eds.). (1996). *Continuing bonds*. Washington, DC: Taylor & Francis.
- Kreicbergs, U. C., Lannen, P., Onelov, E., & Wolfe, J. (2007). Parental grief after losing a child to cancer: impact of professional and social support on long-term outcomes. *Journal of clinical oncology, 25*(22), 3307-3312.
- Kristensen, P., Weisæth, L., & Heir, T. (2010). Predictors of complicated grief after a natural disaster: A population study two years after the 2004 South-East Asian tsunami. *Death Studies, 34*(2), 137-150.
- Kubler-Ross, E. (1969). *On Death and Dying*. New York: The Macmillan Company.
- Kübler-Ross, E. (2003). *On death and dying*. 1969. New York: Scribner's.
- Lee, D. H., & Khang, M. (2018). Parenting school-aged children after the death of a child: A qualitative study on victims' families of the Sewol ferry disaster in South Korea. *Death studies, 1-11*.
- Khang, M., Lee, D. H., & Kim, Y. (2018). Parental Perceptions of Surviving Sibling Grief

- Responses to an Adolescent's Violent and Sudden Death by the Sewol Ferry Disaster in South Korea. *OMEGA-Journal of death and dying*, 0030222818777340.
- Lehman, D. R., Lang, E. L., Wortman, C. B., & Sorenson, S. B. (1989). Long-term effects of sudden bereavement: marital and parent-child relationships and children's reaction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3), 344-367.
- Lichtenthal, W. G., Currier, J. M., Neimeyer, R. A., & Keesee, N. J. (2010). Sense and significance: a mixed methods examination of meaning making after the loss of one's child.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66(7), 791-812.
- Lincoln, Y. S., & Guba, E. G. (1985). *Naturalistic inquiry* (Vol. 75). CA: Sage.
- Lindemann, E. (1944). Symptomatology and management of acute grief.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01(2), 141-148.
- Lohan, J. A., & Murphy, S. A. (2002). Family functioning and family typology after an adolescent or young adult's sudden violent death. *Journal of family nursing*, 8(1), 32-49.
- Machin, L. (2008). *Working with loss and grief: A new model for practitioners*. CA: Sage.
- Mallon, B. (2010). *Working with bereaved children and young people*. CA: Sage.
- Marrone, R. (1997). *Death, mourning, and caring*. Pacific Grove. CA: Brooks-Cole.
- Matthews, L. T., & Marwit, S. J. (2004). Examining the assumptive world views of parents bereaved by accident, murder, and illness. *OMEGA-Journal of Death and Dying*, 48(2), 115-136.
- Meij, L. W. D., Stroebe, M., Schut, H., Stroebe, W., Van Den Bout, J., Heijden, P. G., & Dijkstra, I. (2008). Parents grieving the loss of their child: interdependence in coping. *British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47(1), 31-42.
- Muller, E. D., & Thompson, C. L. (2003). The experience of grief after bereavement: a phenomenological study with implications for mental health counseling. *Journal of Mental Health Counseling*, 25(3), 183-203.
- Neimeyer, R. A. (Ed.). (2001). *Meaning reconstruction & the experience of loss*.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Neimeyer, R. (2005). Grief, loss, and the quest for meaning: Narrative contributions to bereavement care. *Bereavement Care*, 24(2), 27-30.
- Neimeyer, R. A. (2006). Complicated grief and the quest for meaning: A constructivist contribution. *OMEGA-Journal of Death and Dying*, 52(1), 37-52.
- Neimeyer, R. A., Baldwin, S. A., & Gillies, J. (2006). Continuing bonds and reconstructing meaning: mitigating complications in bereavement. *Death studies*, 30(8), 715-738.
- Parkes, C. M. (1988). Bereavement as a psychosocial transition: processes of adaptation to change. *Journal of social issues*, 44(3), 53-65.
- Parkes, C. M. (1993). Psychiatric problems following bereavement by murder or manslaughter. *Bereavement Care*, 12(1), 2-6.
- Parkes, C. M. (1998). Coping with loss: Bereavement in adult life. *Bmj*, 316(7134), 856-859.
- Pauline, B., & Boss, P. (2009). *Ambiguous loss*:

- Learning to live with unresolved grief*. Boston: Harvard University Press.
- Prigerson, H. G., Frank, E., Kasl, S. V., Reynolds, C. F., Anderson, B., Zubenko, G. S., ... & Kupfer, D. J. (1995). Complicated grief and bereavement-related depression as distinct disorders: preliminary empirical validation in elderly bereaved spouses.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52(1), 22-30.
- Rando, T. A. (1985). Bereaved parents: particular difficulties, unique factors, and treatment issues. *Social Work*, 30(1), 19-23.
- Rando, T. A. (1993). *Treatment of complicated mourning*. Illinois: Research Press.
- Rando, T.A. (1995). *Grief and mourning*. In H. Wess & R.A. Neimeyer (Eds.), *Dying: Facing the facts* (pp.211-241). Washington, DC: Taylor & Francis.
- Rosenblatt, P. C. (2000). Protective parenting after the death of a child, *Journal of Personal and Interpersonal Loss*, 5(4), 343-360.
- Rosenblatt, P. C. (2008). *Grief across cultures: A review and research agenda*. In M. S. Stroebe, R. O. Hansson, H. Schut, & W. Stroebe (Eds.), *Handbook of bereavement research and practice: Advances in theory and intervention* (pp. 207-222).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Sanders, C. M. (1989). *Grief: the mourning after: Dealing with adult bereavement*. New York: Wiley.
- Schaal, S., Jacob, N., Dusingizemungu, J. P., & Elbert, T. (2010). Rates and risks for prolonged grief disorder in a sample of orphaned and widowed genocide survivors. *BMC psychiatry*, 10(1), 1-9.
- Schneider, J. (1984). *Stress, loss, grief*. Baltimore: University Park Press.
- Schut, H., Stroebe, M. S., van den Bout, J., & Terheggen, M. (2001). *The efficacy of bereavement interventions: Determining who benefits*. In M. S. Stroebe, R. O. Hansson, W. Stroebe, & H. Schut (Eds.), *Handbook of bereavement research: Consequences, coping, and care* (pp. 705-737).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Steffen, E., & Coyle, A. (2010). Can “sense of presence” experiences in bereavement be conceptualized as spiritual phenomena?. *Mental Health, Religion & Culture*, 13(3), 273-291.
- Strauss, A., & Corbin, J. M. (1990).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grounded theory procedures and techniques*. CA: Sage Publications, Inc.
- Strauss, A., & Corbin, J. M. (2001). 근거이론의 단계. 신경림 역. 서울: 현문사.
- Stroebe, M. S., & Schut, H. (1999). The dual process model of coping with bereavement: rationale and description. *Death studies*, 23(3), 197-224.
- Stroebe, M. S., & Schut, H. (2008). The dual process model of coping with bereavement: overview and update. *Grief Matters: The Australian Journal of Grief and Bereavement*, 11(1), 4-10.
- Stroebe, M., Schut, H., & Boermer, K. (2010). Continuing bonds in adaptation to bereavement: Toward theoretical integration. *Clinical psychology review*, 30(2), 259-268.
- Stroebe, M. S., Hansson, R. O., Schut, H. E., & Stroebe, W. E. (2008). *Handbook of bereavement*

- research and practice: advances in theory and intervention*.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Stroebe, M., & Schut, H. (2010). The dual process model of coping with bereavement: a decade on. *OMEGA-Journal of Death and Dying*, 61(4), 273-289.
- Stroebe, M., Schut, H., & Van den Bout, J. (Eds.). (2013). *Complicated grief: scientific foundations for health care professionals*. New York: Routledge.
- Stroebe, W., Schut, H., & Stroebe, M. S. (2005). Grief work, disclosure and counseling: do they help the bereaved?. *Clinical psychology review*, 25(4), 395-414.
- Tedeschi, R. G., & Calhoun, L. G. (1996). The Posttraumatic Growth Inventory: measuring the positive legacy of trauma. *Journal of traumatic stress*, 9(3), 455-471.
- Tedeschi, R. G., & Calhoun, L. G. (2004). Posttraumatic growth: conceptual foundations and empirical evidence. *Psychological inquiry*, 15(1), 1-18.
- Tedeschi, R. G., & Calhoun, L. G. (2007). Beyond the concept of recovery: growth and the experience of loss. *Death Studies*, 32(1), 27-39.
- Walsh, F., & McGoldrick, M. (2004). *When a family deals with loss: adaptational challenges, risk, and resilience*. New York: Routledge.
- Westberg, G. (1962). *Good grief: a Constructive Approach to the Problems of Loss*. Minneapolis: Augsburg Fortress Publishers.
- Wheeler, I. (2001). Parental bereavement: the crisis of meaning. *Death studies*, 25(1), 51-66.
- Worden, J. W. (1991). *Grief counselling and grief therapy: a handbook for the mental health professional*. London: Tavistock.
- Wortman, C. B., & Silver, R. C. (2001). *The myths of coping with loss revisited*.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원 고 접 수 일 : 2018. 07. 24

수정원고접수일 : 2018. 08. 30

게재결정일 : 2018. 09. 17

A Grounded Theory Study of the Grieving Processes of Bereaved Parents after the Sewol Ferry Disaster

Jiyeol Jeon¹⁾

Jiyoung Shin¹⁾

JoonSup Choi¹⁾

Jeong Han Kim²⁾

Dong Hun Lee¹⁾

¹⁾Sungkyunkwan University

²⁾Texas Tech University Health Science Center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grieving process of Sewol Ferry disaster victims' families using Strauss and Cobin's grounded theory. For this purpose, we analyzed 17 in-depth interviews of bereaved families which had been conducted at two years after the sewol ferry disaster. In open coding, 150 concepts, 53 subcategories, and 23 categories emerged from the data. In axial coding, the causal conditions had 2 categories (eg., sudden disaster, unbelievable death of a child). The contextual conditions had 10 categories (eg., reaction of local residents, lack of support from mass media). The central phenomenon had 1 category (eg., life overwhelmed by unbearable sadness and anger). The intervening conditions had 3 categories (eg., social grieving). Strategies had 3 categories (eg., remembering the shadow of their child). Consequences had 4 categories (eg., enduring with memories of their child). In process analysis, the grieving stages of Sewol Ferry disaster victims' families were 5 stages (shock/denial, sadness/anger, depression/helplessness/frustration, isolation/communality, maintaining complicated grief/a sense of calling). A multi-layered structure of the grieving processes of bereaved parents and plans for support are presented.

Key words : Sewol ferry disaster, bereaved parents, grief, grounded theory